

정책자료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1994.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と 對外經濟政策課題

1994.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1995년은 世界經濟發展에 한 획을 긋는 歷史的인 해가 될 것이다. 戰後 50여년간 世界貿易秩序를 주도해 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21세기 世界貿易秩序를 관장할 世界貿易機構(WTO)가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다. WTO는 그간 짐중되어 온 世界自由貿易에 대한 挑戰을 극복하고 世界貿易을 보다 安定되고 자유로운 기반에 올려 놓으려는 汎世界的인 노력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WTO는 出帆과 함께 世界自由貿易秩序의 완성을 향한 새로운 과제의 해결에 나설 것이다. 7년간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되지 못한 분야에 대한 後續協商이 계속될 것이며, 環境, 勞動, 競爭政策 등과 같은 이른바 新分野에 대한 협상은 WTO의 出帆과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의 出帆에 따라 世界經濟의 排他的 地域主義化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經濟的 利害를 같이하는 국가간의 地域主義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地域主義 추세가 WTO 체제를 보완하여 多者間 自由貿易秩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95년은 그 가능성 또한 감지해 볼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沈滯에 빠졌던 世界經濟는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95년에는 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美國의 好景氣 지속과 日本 및 EU의 본격적인 景氣回復에 힘입어 先進國 經濟가 크게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開途國 經濟의 高度 成長勢는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國 등 東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成長에 따라 世界經濟에서 아시아 경제의 位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體制의 출범과 世界經濟의 回復이라는 호기를 맞아 世界各國은 自國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環境의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國益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흐름을 정확히 診斷하고 展望하는 일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方向을 제시하는 報告書를 出刊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95년 對外經濟政策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經濟의 世界化 戰略을 꼽고 있으며, 南北經協의 중요성이 배가될 것이라는 展望하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또한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의 執筆에는 朴泰鎬, 金寬濤,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朴成勳, 孫讚鉉, 李載星, 李昌在, 李鎬生, 任千錫, 鄭重宰, 蔡 旭, 崔仁範, 洪裕洙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5년도 世界經濟를 眺望하는 데 있어 政府당국자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年 12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 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9
1. WTO 體制의 出帆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9
2. 地域主義의 擴散	11
3. 새로운 通商 이슈의 擡頭	13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擴散	16
II. 1995年 世界經濟展望	19
1. 景氣 및 交易 展望	19
2. 國際金利·換率·油價展望	24
3. 主要國의 經濟展望	28
III.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37
1. 世界化 戰略의 必要性	37
2. 制度와 政策의 실질적인 先進化	38
3. 新分野 國際協商 대비책 강구	39
4. 世界經濟 活性化의 活用	39
5. 對外經濟協力 強化	40
IV. 主要 課題別 對應 戰略	43
1. WTO體制의 出帆과 後續協商	43
2. OECD와의 協力增進	44
3. 國際環境問題	48
4. 기타 新通商 이슈	53
5. 韓·美 經濟協力	59

6. 韓・日 經濟協力	65
7. 韓・EU 經濟協力	70
8. 韓・中 經濟協力	75
9. 亞・太 經濟協力	80
10. 東北亞 經濟協力	85
11. 對開途國 經濟協力	89
12. 南北韓 經濟協力	94
V. 要約	101

〈表目次〉

〈表 II-1〉 主要國의 실질GDP成長率 推移 및 展望	20
〈表 II-2〉 主要國의 失業率 推移 및 展望	21
〈表 II-3〉 主要國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展望	22
〈表 II-4〉 世界 貿易伸張率 展望	23
〈表 II-5〉 國際金利 推移 및 展望	25
〈表 II-6〉 日本의 國際收支 推移	26
〈表 II-7〉 主要 換率의 推移 및 展望	26
〈表 II-8〉 國際油價 推移 및 展望	27
〈表 II-9〉 95年度 美國經濟 展望	29
〈表 II-10〉 95年度 日本經濟 展望	30
〈表 II-11〉 95年度 EU經濟 展望	31
〈表 II-12〉 95年度 中國經濟 展望	33
〈表 II-13〉 95年度 開途國經濟 展望	34
〈表 II-14〉 95年 東유럽 및 러시아 經濟 展望	35
〈表 IV-1〉 美國의 主要 交易相對國別 貿易收支 現況	60
〈表 IV-2〉 韓國의 對美 輸出依存度 變化推移	60
〈表 IV-3〉 對日 輸出入 動向	65
〈表 IV-4〉 日本의 對韓 投資現況	66
〈表 IV-5〉 우리나라의 對EU 交易動向	73
〈表 IV-6〉 韓中 交易推移	76
〈表 IV-7〉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推移	78
〈表 IV-8〉 北韓의 年度別 搬出入 承認現況	97
〈表 IV-9〉 北韓의 年度別 搬出入 通關現況	97
〈表 IV-10〉 北韓의 年度別 임가공 通關現況	98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體制的 出帆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WTO(世界貿易機構)가 정식 出帆하게 됨. 이에 따라 1995년은 1948년과 더불어 20세기 國際交易체제상의 양대 분수령을 이루게 될 것임.

○ 지난 1948년 세계는 GATT(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라는 多者間貿易秩序를 구축하여 自由貿易主義를 채택함으로써 戰後의 세계경제를 復興시켜 왔음.

○ 1995년은 新GATT體制라 할 수 있는 WTO시대의 元年으로 향후 및 21세기의 國際經濟를 관장하는 經濟史的 시기가 될 것임.

○ WTO의 出帆은 外換분야의 IMF(國際通貨基金), 經濟開發분야의 IBRD(世界銀行)과 함께 지난 1948년 GATT출범시 시도되었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三頭體制를 새롭게 완성하는 것임.

-WTO는 UR(우루과이라운드)協商結果를 이행함은 물론 國際交易에 관한 UN으로 21世紀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새로운 世界貿易秩序를 規律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임.

○ WTO는 UR協定을 이행하는 기구로 UR協定의 모든 내용을 관할하며 특히,

- 工產品의 關稅引下와 市場開放의 확대
- 農產物交易에 대한 多者間協定의 채택
- GATT規範의 明瞭化 및 交易의 公正性 제고
- 서비스交易에 대한 새로운 多者間 규범 도입
- 知的財産權보호의 貿易體制로의 편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과거 GATT가 ITO(國際貿易機構)의 설립실패에 따른 변형된 임시체제였다고 한다면 WTO는 강력한 權限을 가진 國際交易에 관한 UN임. 즉, WTO에 紛爭解決機構를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貿易紛爭을 해결·조정토록 하는 한편 貿易政策檢討機構도 새롭게 설치하여 모든 회원국의 貿易관련 法, 制度, 慣行 및 政策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WTO로 하여금 회원국들의 협정위반에 대하여 制裁措置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際交易機構로서의 WTO의 기능을 현저히 강화하고 있음.
- WTO의 出帆은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自國의 국내법규를 WTO協定에 合致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WTO協定과 상치되는 기존의 國內措置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속칭 祖父條項을 배제함으로써 WTO의 공정한 出發을 도모하고 있음.

- 결국 WTO의 出帆은 과거 1960~70년대의 自由貿易體制가 80년대에 와서 保護貿易主義로 변질되어 가던 것을 다시금 自由貿易體制로 회복시킴.

- 특히 WTO는 과거 GATT의 공산품에 한정된 市場開放을 경제 全部門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世界經濟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교역환경하에 점차 국경이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競爭時代로 이행하게 될 것임.

- WTO의 出帆은 世界經濟를 하나의 交易規範(즉, WTO協定)과 하나의 國際機構(즉, WTO), 그리고 하나의 市場經濟圈으로 이끌어 가고 있음. 특히 WTO는 더욱 公正하며 더욱 透明한 多者間規範과 더욱 自由로운 國際交易을 추구하고 있음.

- 이처럼 WTO의 出帆은 명실공히 國際交易의 게임規制를 변모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WTO時代는 모든 國家의 經濟에 큰 衝擊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좋

은 機會도 될 수 있을 것임.

2. 地域主義의 擴散

-1995年 1월1일 WTO 출범을 앞두고 特惠的·排他的 경제블럭화에 대한 위
기감은 상당히 緩和되고 있지만, 隣接國 또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
간의 지역주의화 경향은 당분간 持續될 것으로 전망됨.

-유럽연합(EU)의 單一經濟圈化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東歐圈을 포함
한 광역 유럽경제권으로 擴大될 전망임.

○유럽연합은 최근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
국으로 이루어진 무역그룹)과의 自由貿易協商計劃도 공표하는 등 域外로
의 확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을 통해 미국은 自國中心의 광역경제권의 실현에
拍車를 가하고 있음.

○우선 칠레의 NAFTA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美洲全域
의 34個 國家를 망라하는 美洲自由貿易地帶(FTAA)를 성립시키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음.

-亞·太經濟協力體(APEC) 역시 峇峇회의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개최를
통해 경제블록으로의 指向을 뚜렷이 하고 있음.

○지난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會同한 APEC 18개 회원국 頂上 및
指導者들은 域內 先進國은 2010年 까지, 기타 開途國은 2020年 까지 貿易
및 投資自由化 日程을 완료할 것을 천명하는 「보고르 宣言」을 채택한 바

있음.

- 日本이 議長國이 되는 95년에는 자유화 이행계획(Blue Print) 마련을 위한 協商이 개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단 말레이시아 등 域內 開途國 및 95年 議長國 日本이 무역자유화보다는 인프라開發, 技術 및 資本協力, 人的資源開發, 中小企業振興 등 사안별 협력의 진전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상에 即時 돌입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함.

-지역주의가 세계교역환경을 惡化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WTO체제를 補完하여 다자간 교역질서의 定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함.

- 무엇보다도 아·태지역에서의 APEC을 中心으로하는 地域協力は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바, 무역자유화 등 협력의 성과를 域外國에도 무차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汎世界的 자유화의 진전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경우 단순히 관세·비관세장벽의 撤廢를 넘어서 서비스시장의 개방 및 투자활동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협정보다 오히려 더 未來指向的인 자유화를 先導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한편 아세안 自由貿易協定(AFTA)이 개방 스케줄을 5年 앞당겨 2003년 까지 자유화계획을 이행할 것을 공표한 것이라든지, AFTA와 ANZCERTA (호주·뉴질랜드간 경제협력협정)간에 提携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역주의의 閉鎖性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임.

-따라서 世界貿易秩序의 앞날은 WTO체제와 餘他 地域經濟블럭, 즉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地帶(NAFTA), 亞·太經濟協力體(APEC) 등과의 相互作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3. 새로운 通商 이슈의 擡頭

(1) 새로운 通商 이슈

- 세계는 WTO 이후 새로운 通商 이슈들 - 즉, 貿易과 環境, 勞動, 競爭政策, 技術政策에 관한 汎世界的 규범설정을 위한 多者間 협상들 - 이 등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新通商 이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들로서 앞으로의 多者間 협상 및 규범설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WTO 발족과 더불어 環境과 勞動이 제일 먼저 구체적 通商協商 대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어서 곧 競爭政策이 대두되고 技術문제는 상당한 기간 이후에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 分野別 通商이슈의 背景과 展望

① 貿易과 環境

- 마라케쉬 閣僚會議에서는 「貿易과 環境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어 WTO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무역·환경위원회」가 다루게 될 7가지 의제가 결정되었음.

○ 이에 대한 준비모임으로 WTO 준비위원회 산하에 무역·환경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GATT/WTO에서 무역·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시작되었음. 향후 약 2년여간 WTO에서는 환경관련 각종 조치를 GATT 규범내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환경목적의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무역자유화를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개도국간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GATT규정을 보완, 수정하

는 문제에 대해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貿易과 環境에 관한 논의는 환경관련 무역조치, 현저한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

○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대한 결정 범위 및 수용방안 등이 중점 토의될 것임.

○ 환경관련 각종 부과금 및 세금 그리고 포장, 상표부착, 재활용 요건 등 각종 技術的 規制들이 검토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

② 貿易과 勞動

-아동근로자, 在所者 등 GATT규정에 위배되는 노동자를 이용해서 값싼 상품을 生産·輸出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덤핑으로 勞動時間, 勞動條件 등을 국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어길 경우 통상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임.

-마라케쉬 각료회담에서는 향후 최수노동, 아동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문제를 통상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WTO準備委員會 설립협정문에 “새로운 議題를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 향후 최저임금제, 각국의 노동시간,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복수노조의 허용, 공무원의 단결권 허용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임.

○ 그러나 프랑스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까지로 논의의 대상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임.

-미국은 지난 1979년 美 通商法에 서비스를 貿易關聯議題로 추가한 후 1986년 UR出帆시에 서비스를 正式議題化한 바와 같이, 1988년 美 通商法에 노동권에 관한 무역관련 規定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次期라운드의 의제로 등

장할 가능성이 매우 큼.

③ 貿易과 競爭政策

- 競爭政策과 관련하여서는 OECD에서 80年代初부터 이미 논의해 오고 있어 이미 많은 知識이 축적되어 있음. 貿易의 세계화, 국제화를 맞아 국가간의 市場構造, 企業慣行에서 오는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를 야기시킨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완전한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더하여 自國企業에 유리하게 구성된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의 차이를 없애 경쟁조건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④ 貿易과 技術

- 지난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국제기술규범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연구개발(R&D) 보조금을 규제하자는 권고를 구체화하려고 한 바 있음. 즉 공정한 국제무역을 위하여는 가격경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R&D보조금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임.

- OECD 회원국들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지난 UR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음.

- UR補助金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반기술연구는 총비용의 75%까지, 상품화이전의 개발연구는 총비용의 50%까지를 각각 許容보조금 규모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무역-기술 관련 협상의 주요 의제는 이와 같은 許容보조금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임.

-WTO발효 이후 정부의 R&D보조금 한도를 규정한 UR協定文을 근거로 해서 技術開發의 개념이 정립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로는 기술정책과 무역의 연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 다만 先進國은 자신들이 축적한 과학기술을 후발국가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국제 기술개발규범에 연계하여 후발국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擴散

-WTO體制의 출범에 따른 交易障壁의 완화 및 철폐,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정보전달체계의 초고속화, 自由貿易地帶(FTA)의 확산, 舊사회주의 국가의 市場經濟 정착과 中國의 GATT 가입예상 등으로 世界經濟가 하나의 市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

○하나의 市場時代 전개에 발맞추어 모든 국가와 企業의 活動이 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汎世界的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世界貿易이 經濟成長보다 빠른 속도로 신장되어 모든 국가에서 貿易依存度가 높아짐으로써 국가경제의 相互依存性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의 상호의존성은 자유교역의 범위가 工產品에서 農產物, 서비스 등 여타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資本移動의 급속한 增大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世界經濟의 회복에 따라 더욱 촉진될 것임.

○1993년의 경우 선진국의 資本移動은 80년대 전반에 비해 7배이상 증가하

였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資本流入은 22배나 증가하였음.

- 특히, 海外直接投資는 85년 이후 GDP 및 世界貿易 뿐만 아니라 國內投資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企業이 全世界를 상대로 資本, 勞動, 技術 및 經營與件을 최적결합하여 생산· 판매하는 세계적 규모의 生産 및 販賣組織化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多國籍企業의 판매고가 이미 세계의 交易總額을 능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확산되고 있는 多國籍企業間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經濟活動의 汎世界化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임.



II. 1995年 世界經濟展望

1. 景氣 및 交易 展望

(1) 世界 景氣 回復勢 持續

-80년대 후반의 長期好況에 뒤이은 경기순환적 요인에다 걸프사태, 거품경제 붕괴, 統獨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90년대 들어 장기 침체에 빠졌던 世界經濟는 94년 들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함.

○ 지난 90년 선진국중 가장 빨리 침체에 빠졌던 美國經濟는 92년부터 回復 期에 접어들어 94년에는 활황의 양상을 보이면서 世界經濟 회복을 주도 함.

○ 지난 92년 급격히 경기침체에 빠졌던 日本經濟는 94년 하반기부터 회복되 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EU 經濟는 지난 3년간 1% 이하의 성장에 서 벗어나 94년에는 본격적인 회복 추세를 보임.

-이처럼 世界經濟가 회복세에 접어든 데에는 물가안정과 함께 세계 각국이 國內景氣 부양을 위해 실시한 金融緩和 및 公共支出 확대정책 등이 주요하 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주요 先進國을 중심으로 自國産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인 산업정책 및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도 世界經濟의 회복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世界經濟의 회복세는 9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國際金利 및 原資材價格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世界經濟의 회복

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며 世界經濟는 이미 자체적인 탄력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95년에 출범하는 WTO 체제하에서 예상되는 世界交易規模의 확대와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世界經濟 回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95년 世界經濟는 94년보다 0.5% 포인트 정도 높은 3.6% 내외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先進國經濟는 美國經濟가 잇달은 金利引上의 영향으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日本 및 獨逸經濟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데 힘입어 94년보다 다소 높은 2.6% 내외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開途國經濟는 先進國經濟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92년 이후 6% 내외의 높은 성장을 계속하여 왔고 그동안 추진해 온 構造調整 및 안정화정책의 효과와 域內交易增大 등에 힘입어 95년에도 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表 II-1〉 主要國의 실질 GDP 成長率 推移 및 展望

(단위 : %)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IMF	DRI	IMF	DRI
先進國	1.5	1.3	2.7	2.3	2.7	2.5
美國	2.3	3.1	3.7	3.6	2.5	2.2
日本	1.1	0.1	0.9	0.8	2.5	2.4
獨逸	2.2	-1.1	2.3	1.5	2.8	2.7
E U	1.1	-0.3	2.1	1.7	2.9	2.7
開途國	5.9	6.1	5.6	5.3	5.6	5.2
舊共產圈國家	-15.5	-9.0	-8.3	-	-1.0	-
世界全體	1.7	2.3	3.1	2.8	3.6	2.9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3/4, 1994

○舊蘇聯邦經濟는 經濟安定化政策의 效果가 나타나고 어느 정도 政治적 안정을 이룰 것으로 보여 95년에는 -1% 정도의 성장 감소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2) 先進國의 高失業 解消 難望

-94년 美國의 失業率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日本 및 EU의 경우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失業率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日本 및 EU의 景氣回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95년에도 이들의 失業率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日本의 경우 기업의 리스트럭처링 등으로 인해 景氣回復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세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로 95년에도 3% 정도의 失業率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EU의 失業問題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 등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95년에도 11%가 넘는

〈表 II-2〉 主要國의 失業率 推移 및 展望

(단위 : %)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IMF	DRI	IMF	DRI
先進國	7.7	8.1	8.2	-	8.1	-
美國	7.4	6.8	6.3	6.2	6.3	6.0
日本	2.2	2.5	2.9	2.9	3.0	3.0
獨逸	7.7	8.9	9.8	10.2	9.8	10.0
E U	10.0	11.2	11.8	-	11.5	-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3/4, 1994

失業率이 예상됨.

—先進國의 高失業문제는 이들 국가의 財政赤字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保護貿易主義 성향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世界經濟 회복에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3) 物價의 持續的 安定

—GDP갭(잠재 GDP와 실질 GDP의 차이)으로 측정되는 景氣沈滯의 정도가 美國을 제외한 주요 先進國에서 아직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景氣回復에도 불구하고 物價上昇率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GDP갭을 통해서 볼 때 景氣回復에 따라 95년중 인플레이 압력이 있는 국가는 美國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表 II-3〉 主要國의 消費者物價 上昇率 展望

(단위 : %)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IMF	DRI	IMF	DRI
先進國	3.3	2.9	2.4	2.4	2.6	2.6
美國	3.0	3.0	2.7	2.4	3.4	2.9
日本	1.7	1.3	0.7	1.2	0.7	1.4
獨逸	4.9	4.7	3.1	3.0	2.2	2.4
E U	4.6	3.8	3.1	3.0	2.7	2.9
開發國	38.7	46.2	47.5	112.9	13.2	93.4
舊共產圈國家	730.7	687.9	330.8	-	89.4	-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3/4, 1994

—開途國과 舊共産圈國家의 경우 95년중 物價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物價上昇率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油價 및 原資材價格의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競爭激化에 따른 기업의 價格引下 노력이 이를 상당히 흡수할 것으로 보임.

(4) 世界貿易의 擴大 持續

—世界貿易은 95년에도 先進國의 景氣回復, 開途國의 지속적인 高度成長, 體制轉換國들의 輸入需要 增大 등에 따라 6%대의 높은 伸張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7%대에 이르렀던 94년의 世界貿易 伸張率 보다는 다소 下向된 展望이나 지난 20년간의 平均 伸張率 5%를 초과하는 수치임.

○ 先進國의 輸入 伸張勢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開途國의 경우 中國과 ASEAN

〈表 II-4〉 世界 貿易 伸張率 展望

(단위 : %)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IMF	DRI	IMF	DRI
先進國	4.3	1.8	7.2	6.4	4.8	5.8
美國	11.1	12.8	11.5	11.4	5.7	7.1
日本	-0.7	4.2	10.1	8.6	5.3	3.6
獨逸	2.1	-5.9	6.0	2.9	3.7	6.1
E U	3.4	-4.0	5.1	3.9	4.8	5.4
開途國	11.2	9.3	7.2	10.7	7.9	9.8
世界全體 ^{b)}	4.7	4.0	7.2	7.5	5.9	6.8

註 : 1)은 貿易 增加率, 나머지는 輸入 增加率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3/4, 1994

을 중심으로한 자본재 및 중간재에 대한 높은 輸入增加勢를 바탕으로 94년에 못지 않은 높은 輸入伸張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2. 國際金利 · 換率 · 油價展望

(1) 國際金利 上昇勢 持續

-94년 美國金利는 美國景氣의 급속한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 재연을 방지하고 달러화가치의 급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金融緊縮基調를 유지한 결과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음.

○ 聯準理(FRB)는 94년 2월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단기금리인 聯邦基金(FE)金利를 3.0%에서 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再割引金利도 세차례에 걸쳐 3.0%에서 4.75%로 인상하였음.

○ 이에 따라 유로市場에서의 리보金利(3개월물)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 94年初 3%대에서 현재는 6%선을 넘어서고 있음.

-한편 日本金利는 景氣回復에 대한 기대로 94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獨逸과 英國에 있어서도 長期金利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95년중 國際金利는 94년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先進國들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증대, 開途國들의 SOC 확충을 위한 外資導入의 증대 등 世界資金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공급 측면에서 先進國의 저축률 하락 및 財政赤字 확대 등으로 국제자금수급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그러나 日本 및 獨逸 경기의 회복에 따라 이들 국가의 世界資金 공급능력

이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通信 및 컴퓨터 등 매체의 발달로 자금 전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각한 세계자금 경색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美國金利는 95년중 美國經濟의 성장세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우려로 상반기중 上昇勢를 나타내다가 하반기 이후 다소 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日本 및 獨逸의 경우도 景氣回復에 따라 長期金利가 다소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表 II-5〉

國際金利 推移 및 展望¹⁾

(단위 : %)

	93.12	94.6	94.12	95.3	95.6	95.9	95.12
유로달러	3.31	4.81	5.72	6.18	6.56	6.60	6.62
유로 엔	2.09	2.22	2.39	2.71	3.03	3.35	3.67
유로마르크	5.88	4.94	5.16	5.42	5.72	5.96	6.22

註 : 1) 3개월물 LIBOR 금리, 94.12 및 95년 수치는 전망치임.

資料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Nov. 1994

(2) 달러貨 다소 強勢 回復

-94년중 美달러화는 美國의 景氣回復 및 短期金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美주식 및 채권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대규모 投機資金의 일탈 등으로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한 약세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94年初 달러당 110엔대를 기록했던 엔화의 對달러화 환율은 美日包括協議의 결렬, 美行政府의 엔화 절상 유도설, 國際投機資金의 엔화 매입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인 결과 10월중에는 96엔대까지 떨어짐.
- 마르크화는 3/4분기 들어 獨逸 經濟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강세로 전환되어, 10월중에는 달러당 1.49마르크대까지 상승함.

-95년에 美달러화는 엔화에 대한 강세를 다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日本의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美經濟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日本의 經常收支 黒字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 거품경제 붕괴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던 日本의 長期資本收支 赤字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日本의 기초수지(경상수지+장기자본수지)도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美달러화는 마르크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獨逸 聯邦銀行이 경기회복에 주력하여 金融緊縮政策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美國과의 금리차에 따른 美國으로의 자본 유출이 달러화의 對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表 II-6〉 日本의 國際收支 推移

(단위 : 10억달러)

	經常收支	長期資本收支	基礎收支
1990	35.7	-43.6	-7.8
1991	72.9	37.1	110.0
1992	117.5	-28.5	89.1
1993	131.4	-78.3	53.1
1994 1/4	34.9	46.9	81.9
2/4	33.3	-34.4	-1.1
3/4	29.5	-44.6	-15.1

〈表 II-7〉 主要 換率의 推移 및 展望

	94.3	94.6	94.9	94.12	95.3		95.9	
					WEFA	DRI	WEFA	DRI
엔/달러	102.8	98.4	99.1	102.0	104.0	106.0	108.0	104.5
마르크/달러	1.669	1.585	1.551	1.520	1.553	1.585	1.617	1.634

資料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Nov. 1994

DRI, The Foreign Exchange Bulletin, Oct. 1994

(3) 油價 완만한 上昇勢 維持

—供給過剩에 따라 93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國際油價는 94년 4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함.

○ 이는 先進國의 경기회복, 美國 金融市場의 불안에 따른 투기성 자금의 原油市場 流入 등으로 原油 需要가 급증한 반면, 북해유전의 보수, 예멘 내전, 나이지리아 파업, OPEC 產油量 동결 합의 등 공급불안의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94年初 14달러선에 머물러 있던 WTI 배럴당 가격은 20% 이상 상승하여 현재 17달러선에 이르고 있음.

—油價의 상승세는 95년에도 완만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 先進國의 景氣回復과 아시아국가의 경기활황으로 原油需要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투기성 자금의 原油市場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 供給側面에서는 OPEC 국가들이 原油 증산을 가능한 한 자제할 것으로 보이며, 舊소련 등 非OPEC 국가들의 경우도 설비의 노후화로 생산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과잉생산은 없을 것임.

〈表 II-8〉 國際油價 推移 및 展望

(단위 : 달러/배럴)

	91年	92年	93年	94年(展望)	95年(展望)	96年(展望)
WEFA ¹⁾	21.50	20.57	18.49	17.09	17.65	18.60
DRI ²⁾	17.30	18.00	15.70	16.00	17.60	18.10

註 : 1) WTI 가격

2) 主要 原油 輸出國 平均油價

資料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94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3/4, 1994

- 한편 이라크에 대한 UN의 禁輸措置가 95년에 해제될 경우 油價의 상승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3. 主要國의 經濟展望

(1) 美國 經濟 : 成長勢 다소 鈍化

- 94년 美國經濟는 기업설비투자 및 신규주택투자의 확대, 민간소비지출의 호조에 따라 본격적인 回復勢를 나타냈음.

○ 1/4분기 3.6%의 실질 GNP 成長率(전년동기비)을 기록한 美國經濟는 2/4, 3/4분기에도 각각 4.1%, 3.9%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年初 6.8%선에 이르렀던 失業率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美國經濟가 이처럼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美연준은 인플레이 예방차원에서 여섯차례에 걸친 短期金利 인상을 단행했음.

○ 그러나 인플레이 우려와는 달리 美國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줄곧 3%선을 밑돌음으로써 94년 美國經濟는 物價 안정위에 견실한 經濟成長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95년 美國經濟는 金利引上의 여파, 政府支出의 억제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간 成長率은 3%에 다소 못미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신뢰지수가 6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기업재고수준도 4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등 95년부터 美經濟의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남.

○物價는 94년보다 다소 높은 上昇勢를 나타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임.

—한편 유럽 및 日本의 景氣回復과 WTO 出帆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으로 95년중 美國의 輸出은 94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輸入增加率이 輸出增加率을 앞서 貿易收支 赤字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表 II-9〉 95年度 美國經濟 展望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IMF	OECD	IMF	OECD
실질GDP 成長率(%)	2.3	3.1	3.7	3.9	2.5	3.1
失業率(%)	7.4	6.8	6.3	6.1	6.3	5.6
消費者物價上昇率(%)	3.0	3.0	2.7	2.2	3.4	3.1
貿易收支(10억달러)	-96.1	-132.6	-168.0	-170.0	-184.0	-187.0
經常收支(10억달러)	-67.9	-103.9	-149.4	-154.0	-167.5	-173.0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94

(2) 日本 經濟 : 본격적 回復局面 進入

—지난 91년 이후 극심한 景氣沈滯를 겪었던 日本經濟는 94년 하반기부터 회복기미를 보였음.

- 94년 6월 이후 각종 景氣 동행 및 선행지수들이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지난 9월 景氣回復을 공식선언함으로써 日本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였음.
- 日本經濟의 회복세는 93년 이후 수차례 단행된 경기종합대책에 따른 공공 투자의 확대와 민간소비지출의 증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기업설비투

자의 회복은 지연됨.

—日本經濟의 회복세는 95년에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94년 1.0%정도의 성장에 이어 95년에는 2.5%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企業의 수익 호전과 金利安定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95년에는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소비와 공공투자의 확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94년 8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바 있는 日本의 貿易收支 黒字는 95에도 엔高의 지속과 景氣回復에 따른 內需擴大 등으로 흑자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表 II-10〉 95年度 日本經濟 展望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IMF	OECD	IMF	OECD
실질GDP 成長率(%)	1.1	0.1	0.9	1.0	2.5	2.5
失業率(%)	2.2	2.5	2.9	2.9	3.0	3.0
消費者物價上昇率(%)	1.7	1.3	0.7	0.8	0.7	0.5
貿易收支(10억달러)	132.3	141.5	147.1	152.0	144.8	154.0
經常收支(10억달러)	117.6	131.4	135.7	140.0	128.8	145.0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94

(3) EU 經濟 : 成長속 高失業 持續

—9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EU 經濟는 94년에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를 보임.

○94년 EU 經濟의 회복에는 北美, 東南아시아 지역의 수입수요 강세 및 域

內貿易의 증가에 따른 輸出增大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함께 93년이후 잇따른 金利引下, 유럽 外換 및 金融市場의 안정, 企業의 생산성 제고 등도 EU 經濟 回復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95년중에는 物價 및 金利의 안정으로 인한 설비투자 증대와 域內貿易의 확대에 따른 수출강세 등으로 EU의 경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져, 연간 2.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獨逸의 경우 증세, 사회보장소득의 감소, 高失業에 따른 賃金上昇率 둔화로 민간소비지출이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低金利의 지속으로 기업 설비 및 주택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 물가안정속에 2.8%내외의 成長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유럽국가 가운데 가장 일찍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英國經濟는 緊縮財政 및 金融政策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94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景氣回復에도 불구하고 EU의 고용사정은 95년에도 소폭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임.

〈表 II-11〉 95年度 EU 經濟 展望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IMF	OECD	IMF	OECD
실질GDP 成長率(%)	1.1	-0.3	2.1	2.5	2.9	3.0
失業率(%)	10.0	11.2	11.8	11.8	11.5	11.4
消費者物價上昇率(%)	4.6	3.8	3.1	3.0	2.7	2.6
貿易收支(10억달러)	-9.4	65.1	93.8	87.0	103.8	111.0
經常收支(10억달러)	-61.9	8.3	38.4	16.0	45.2	41.0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94

- 이는 EU의 失業問題가 勞動市場의 경직성,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단순히 景氣回復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EU의 失業率은 95년에도 여전히 1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4) 中國 經濟 : 景氣過熱 다소 鎮靜

- 92·93년 연속 13%를 넘는 고도 성장세를 보였던 中國經濟는 93년 하반기 이후 中國政府의 강력한 景氣調節政策의 영향으로 94년 상반기중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11.6%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함.
- 그러나 94년 상반기 消費者物價는 상품세·유통세 등 新稅制 도입에 따른 가격 인상, 적자 국유기업 구제금융으로 인한 通貨量 팽창 등의 영향으로 93년의 14.7%를 넘는 19.8%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이에 따라 94년 中國經濟는 11%대의 成長率과 22%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95년에도 中國經濟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등 고정자산 투자 주도하에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中國政府가 95년에도 성장 보다는 인플레이방지를 위해 緊縮政策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成長率과 物價上昇率 모두 94년 보다 다소 낮아져 각각 10% 및 16%선이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93년에 대규모 赤字로 반전되었던 貿易收支는 94년에 元貨 평가절하와 적극적 수출진흥책에 힘입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음.
- 95년에도 20%에 달하는 輸出伸張勢가 예상되나 기계설비 및 원재료 수입, 그리고 GATT 가입을 위한 추가적 關稅引下와 市場開放으로 수입신장세

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貿易收支 흑자폭이 94년보다 소폭 확대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임.

〈表 II-12〉 95年度 中國經濟 展望

(단위 : %)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실질 GDP 成長率(%)	13.0	13.4	11.3	9.9
消費者物價上昇率(%)	6.3	15.0	22.4	16.8
貿易收支(10억달러)	5.2	-8.9	2.5	2.9

資料 : DRI, World Market Report. Nov. 1994

(5) 開途國 經濟 : 아세안經濟의 高度成長 持續

—國別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開途國經濟는 그동안 추진해 온 構造調整 및 안정화 정책의 효과, 域內交易의 증대, 1차상품의 가격회복 등으로 95년에도 成長勢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ASEAN의 경우 94년에 이어 95년에도 7%대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94년 ASEAN의 經濟成長을 주도했던 外國人投資의 활발한 유입, 域內交易의 확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域內 자체수요의 증대 등이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國別로는 泰國,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7%를 넘는 高度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泰國,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기술인력의 부족이 성장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中南美의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市場開放政策 및 구조개편작업,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안정에 힘입어 94년 3% 성장에 이어 95년에는 4%대에 육박

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임.

〈表 II-13〉

95年度 開途國 經濟 展望

(단위 : %)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실질 GDP 成長率				
NICs	5.4	5.3	6.2	6.5
아세안 4國 ^D	5.9	6.4	6.5	6.1
中南美	2.2	3.7	3.0	4.1
消費者物價上昇率				
NICs	9.7	8.4	7.5	6.5
아세안 4國	6.3	6.5	6.2	6.7
中南美	242.8	356.7	541.8	416.0

註 :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資料 : DRI, World Market Executive Overview, 3/4, 1994

(6) 동유럽 및 러시아 經濟 : 동유럽經濟 回復勢의 擴張

—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OECD 移行國家를 중심으로 한 景氣回復勢가 95년에는 여타 동유럽국가들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그동안 通貨緊縮政策의 효과로 物價上昇率도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國營企業의 사유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체코·헝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의 失業率이 여전히 12-18%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러시아經濟의 경우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러시아政府의 緊縮政策基調가 95년에도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여 物價上昇率이 비교적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실질 GDP 감소세도 둔화되어 95년에는 4% 미만의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表 II-14〉 95年 동유럽 및 러시아 經濟 展望

	1992	1993	1994(推定)	1995(展望)
실질 GDP 成長率				
동유럽 ¹⁾	-11.7	-5.7	-5.4	1.4
러시아	-19.0	-12.0	-12.0	-3.9
消費者物價上昇率				
동유럽 ¹⁾	369.9	442.3	216.9	77.2
러시아	1,353.0	915.3	336.3	96.5

註 : 1) 베라루스, 우크라이나 포함

資料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4



Ⅲ.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戰略의 必要性

-WTO體制의 출범과 經濟活動의 급속한 범세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經濟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합류하여 나아가기 위한 世界化 戰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經濟的 側面의 世界化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취해온 市場의 開放化와 우리기업과 제품의 국제적 진출을 의미하는 國際化 努力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世界市場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세계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서는 우리경제의 制度와 政策面에서 실질적인 市場開放과 國際化를 계속 추진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意識과 慣行을 합리성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함.

-한편 경제활동의 汎世界化 趨勢에 합류하여 지구촌 여타 국가와의 경쟁·협력·조화를 추구하면서 우리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및 일반 국민의 力量開發로 우리의 國際競爭力을 向上시키는 것이 그 前提라 할 수 있음.

○경제부문 世界化와 國際競爭力 向上의 핵심주체라 할 民間企業은 生産技術 및 마케팅 등 經營上의 優位確保와 世界經營을 위한 專門人才를 양성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반국민과 정부, 정치권,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등 사회전반의 意識改革과 均衡있는 發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특히 政府는 우리 경제의 장기비전, 産業構造 調整 그리고 새로운 國際秩序의 變化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國家次元의 對外經濟戰略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2. 制度와 政策의 실질적인 先進化

-정부의 국제화과정에서 그 동안 많은 制度와 政策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제도의 實質的인 先進化는 아직 부족함.

-95년중의 WTO體制 출범과 우리의 OECD加入에 대비하고 또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國際的 水準에 부합되도록 改善되어야 함.

○특히 기업들의 세계화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金融 및 外換分野의 規制, 土地利用에 관한 規制 및 各種 行政節次上의 번잡한 規制들을 과감히 撤廢해야 함.

○商品과 서비스 및 人力資源 등 모든 經濟資源이 국내외로 자유로이 이동하고 국내외 기업과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모든 制度가 지속적으로 檢討·改善되어야 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도 透明性(客觀性), 一貫性, 合理性이 존중됨으로써 經濟主體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豫測可能性을 높여 나가는 일이 世界化를 促進하는 기본 방향임.

3. 新分野 國際協商 대비책 강구

—80년대 거론된 주요 國際通商課題들을 포괄하는 規範을 확립한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이제는 環境, 競爭政策, 勞動條件, 技術開發 등에 대한 새로운 의제들이 WTO, UN 혹은 OECD 등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環境問題는 WTO내에 이미 貿易·環境委員會가 설치되고 UNCED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선진국들은 향후 環境문제를 이유로 국제 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는 環境기술의 개발, 環境산업의 육성, 國內環境제도의 개선 등 國內적 준비와 함께, 國際協商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協商對策 準備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그 밖에 경쟁정책, 노동조건, 기술개발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는 있으나, 美國을 中心으로 논의를 본격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학계·업계 등과의 共同研究 對應體制를 확립해 나가야 함.

4. 世界經濟 活性化의 活用

—94년중 이미 活況局面을 보인 美國經濟에 더하여, 그 동안 침체국면에 빠져 있던 일본과 서유럽경제도 최근들어 回復勢를 보이고 있어, 95년중 세계경제는 상당한 好況局面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세계교역도 95년중 높은 신장세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우리 상품과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

한 好機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특히 中國과 東南亞地域의 높은 經濟 成長 勢의 持續과 활발한 社會間接資本 投資 등을 감안할 때, 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확대를 위한 최적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임.

-95년중에도 엔고추세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 상품의 輸出競爭에 有利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95년중 우리의 수출여건은 매우 밝다 하겠음.

○다만 80년대 후반과 같이 엔고에 따른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그에 따른 수출의 양적확대에 안주하지 말고, 政府와 企業은 부단한 技術開發과 産業構造 調整을 통한 장기적인 質的 發展을 도모하는 轉機로 활용해야 함.

5. 對外經濟協力 強化

-세계무역질서는 한편으로 WTO출범에 따른 多者間 自由貿易 關係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맞는 국가간의 경제블럭화 추세와 양자간의 통상교섭도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각국은 自國의 經濟的 利益을 위한 實利外交에 전념하고 있는 國際經濟 現實을 직시하여, 위와 같은 국내제도 및 국민의식의 개혁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뿐만 아니라, 對外的인 經濟協力 強化를 위한 多角的인 努力이 한층 더 요청됨.

-특히 95년중 새로 출범하는 WTO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무역국으로서 이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다하고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 WTO와 같이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 多者間 機構의 강화는 우리가 雙務間 貿易協商에서 겪는 협상력의 취약점을 보완하

는 데도 活用될 수 있음.

세계적인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등 경제강대국 중심의 NAFTA와 EU가 域外國家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차별적 貿易블럭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APEC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여 나가는 발판으로 活用할 수 있을 것임.

OECD 가입 특히 開發支援委員會(DAC)의 가입 등을 감안할 때, 우리도 우리국력에 상응하는 對개도국 경제협력 자금의 확대와 그 자금의 효과적인 活用 방안을 연구·발전시켜야 할 것임.



IV. 主要 課題別 對應 戰略

1. WTO體制의 出帆과 後續協商

- 1994년말까지 미국, EU 및 일본을 포함한 세계 주요무역국들이 WTO加入에 따른 國內節次를 완료할 것이므로 1995년 1월 1일자로 WTO가 정식 출범할 것임.
- WTO協定文에 따라 先進國은 1년이내에, 開途國들은 상당부문에 걸쳐 5년 이내에 協定の 國內履行이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특히 先進國의 경우 1995년에는 WTO協定の 이행을 위한 國內관련 法, 制度 및 政策의 수정·보완작업이 최우선과제가 될 것임.
- 한편 UR協定에서 완료하지 못하고 1995년에 續開해야 할 後續協商과제들이 있음. 後續協商은 통일원산지規程의 제정과 함께 주로 서비스部門의 추가적인 協定文 協商과 일부 서비스분야의 讓許協商이 남아 있는 상태임.
 - 서비스部門의 協定文 協商의 경우에는 각국의 國內規制, 긴급수입제한, 정부조달, 보조금, 서비스 교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격제도(특히 회계사)에 관한 協商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이중에서 서비스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WTO協定 발효후 바로 協商을 개시하여 3년 이내에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사 자격제도에 관한 협상도 WTO協定 발효후 바로 작업반이 가동될 예정임. 이와함께 서비스部門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상도 WTO協定 발효후 2년 내에 개시될 것임.
 - 서비스의 양허와 관련한 추가협상의 경우에는 金融, 基本通信 및 海運서비스

스가 각각 95년 4월, 96년 6월까지 계속 협상하도록 되어 있음.

- 통일원산지 規程 제정작업은 WTO협정 발효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시작하여 3년내에 협상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음.

-이상과 같은 WTO의 後續協商을 위하여 인력의 국경이동 및 金融서비스의 協商戰略을 마련함이 중요함. 특히 金融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經濟가 상당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市場開放을 위한 사전준비와 제도정비가 매우 중요할 것임.

-1995년에는 이상과 같은 WTO履行作業 및 UR後續協商 이외에도 貿易과 環境, 勞動權문제, 競爭政策에 대한 國際的 論議 등 다양한 “새로운 議題(new agenda)”들이 등장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새로운 通商이슈의 등장에 대비한 준비가 중요할 것임.

2. OECD와의 協力增進

(1) WTO 체제하에서의 OECD의 役割

-OECD 會員國들이 모두 WTO의 會員國일 뿐만 아니라 G7 국가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世界交易秩序의 확립에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WTO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先進國간의 이해차이를 OECD內에서 사전협의의 거친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의 순조로운 출범과 역할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임.

- WTO의 출범으로 국가간 무역자유화가 보다 보편화된 시점에서 OECD는

보다 차원 높은 무역자유화를 성취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특히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에 관한 자유화규약의 이행확보를 위한 체제강화가 예상됨.

- OECD는 향후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아직은 WTO에서 다루지 않는 환경, 경쟁정책,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협의와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 유럽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OECD는 최근 멕시코를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한국 및 동구권경제를 새로운 會員國으로 가입시킬 예정으로 있어 범세계적 經濟協力體로의 성격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2) OECD와의 協力現況 및 展望

— 國際經濟秩序의 사전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1996년말까지는 OECD에 가입할 계획임.

- 「新경제」 5개년계획에 의하면 1996년중에는 GNP, 國際收支 등 제반경제지표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자본·서비스시장이 상당수준으로 개방되는 등 OECD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 정부는 「新경제」계획(1993. 7)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994년말에 加入을 신청하여, 1995년부터는 OECD와의 본격적인 가입교섭에 임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1996년 말까지는 OECD에의 가입을 完了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OECD와의 각종 Workshop 및 회의, 그리고 OECD 산하 각종 委員會 및 關係機構에의 옵저버 혹은 정식가입 등을 통하여 OECD와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協力關係는 앞으로도 확대·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OECD 會員國과 아시아 고도성장국(DAEs :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 말레이시아, 태국)간 Workshop 상호개최 및 韓·OECD간의 한국경제검토 회의 등을 통하여, 貿易政策, 租稅, 投資, 金融 등 협력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산하 총 26개 전문위원회중 철강위원회 및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경제동향검토, 무역, 공업, 경쟁정책, 환경, 교육,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재정, 경제정책, 관광, 해운, 고용·노동·사회문제, 소비자정책, 수산, 정보·컴퓨터·통신정책, 금융시장 위원회 등 17개 위원회에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보험위원회와 공공관리위원회에는 이미 옵저버 자격의 加入申請을 해 놓은 상태이고, 농업·개발원조, 통화·외환문제, 지불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가입도 95년 혹은 그 이후에 추진할 예정임.
 - 이외에도 OECD 관련기구중 조선작업반, 개발센터, 원자력기구 등에는 정식회원으로, 그리고 교육연구혁신센터에는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에는 95년 이후 가입할 예정임.

(3) OECD와의 협력증진에 따른 效果

- OECD와의 협력증진은 國際的 역할의 제고, 先進國과의 정책협의를 원활화,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를 통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世界化의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韓國經濟의 규모확대와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추세 속에서, OECD와의 협력은 先進經濟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高度化된 경제운영방식에 관한 OECD委員會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90년대의 새로운 貿易懸案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경쟁정책 등에 대

한 우리의 政策啓發에 活用할 수 있음.

－韓·OECD 관계가 심화되어 OECD에 가입할 경우, 서비스교역 自由化, 對 外資本移動 自由化義務, OECD 會員國으로서의 政策運用수칙 등 우리 경제가 단시일내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世界化를 향한 국민적 합의와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향후 OECD에의 정식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자유화 부담 등은 오히려 우리의 제도와 관행의 國際化를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인식하여야 함.

(4) 우리의 對應

－「新경제」 5개년계획 후반기인 1996년까지는 OECD 加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검토된 OECD 규정을 중심으로 가입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OECD 각종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 OECD 諸般規程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제반제도의 정비방안을 포함하여 OECD 加入에 대비한 汎政府次元의 가입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개별전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활동참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또한 環境, 競爭政策, 勞動, 技術 등 90년대의 새로운 무역정책 현안에 관하여 개최될 OECD와 DAEs간 workshop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함.
- OECD 가입 등과 관련 상호정보교환에 관한 韓·OECD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 관계부처와 OECD 관련사무국간, OECD/OLIS 주관기관인 KIEP와 國內의 관련전문기관의 정보수집과 교환체계가 더욱 組織化되어야 함.

- 파견·연수 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OECD 專門家의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임.

—또한, 순조로운 OECD 加入을 위해 국내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OECD 가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自由化와 서비스시장 개방화계획과 연계하여 舉國的인 국제화 추진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야 함.
- OECD 가입요건인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의 자유화규약 이행 및 對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제공 등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예산, 제도적 조정을 실시하여야 함.
- OECD 가입의 경제·사회적 國際化에의 기여에 대한 홍보를 통해 OECD 가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혀가야 함.

3. 國際環境問題

(1) 現況 및 展望

—95년에는 WTO에서의 貿易-環境 連繫 論議가 본격화됨과 더불어 UN 持續開發委員會(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에서의 논의도 보다 구체화될 것이며 각종 國際環境協約관련 協商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임.

- WTO 출범에 따라 閣僚會議 산하 貿易·環境 委員會(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가 정식으로 가동됨으로서 WTO에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
- 「議題 21」의 후속작업을 진행중인 UN 지속개발위원회에서도 「議題 21」履

行評價計劃에 따라 94년부터 시작된 부문별 평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財源調達 및 技術移轉을 촉진할 각종 메카니즘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임.

- 이미 발효되어 시행중인 몬트리올議定書, 바젤協約 등을 포함하여 94년에 발효 된 氣候變化協約과 生物多樣性協約에서도 회원국의 의무사항, 자원 조달 등을 위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GATT/WTO에서는 貿易-環境 問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음.

- 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결정에 따라 WTO 각료회의산하에 설치될 무역·환경위원회에 대한 준비모임으로 WTO 준비위원회산하에 무역·환경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중임.
- 貿易效果를 동반하는 環境措置, 環境목적의 貿易措置 등 7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현재 5차회의까지 개최됨으로서 GATT/WTO에서 무역-환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시작되었음.
- 同 小委의 작업은 WTO 무역·환경 위원회로 이관, 추진되어 약 2년여후로 예상되는 WTO 첫 각료회의에서 그간의 작업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WTO 貿易·環境 委員會의 議題 및 主要 論議 內容

○ 議題

- ① 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 ② 현저한 무역효과를 동반하는 환경 정책 및 조치
- ③ 환경목적의 부과금, 조세 및 환경마크, 포장, 재활용 요건 등의 제품요건
- ④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및 현저한 무역효과를 갖는 환경조치와 요건의 투명성
- ⑤ 국제무역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분쟁해결절차

⑥ (최빈)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대한 환경조치의 영향 및 무역 제한/왜곡 요소 철폐의 환경적 효과

⑦ 국내 판금품의 수출 문제

※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협정의 환경관련 규정도 검토 예정임.

○ 主要 論議 內容

- 환경관련 一方的 혹은 多者間 貿易措置에 대한 인정 범위 및 다자간 무역규범으로의 수용 방안
- 환경조치 및 규제의 貿易障壁化 防止 방안
- 貿易自由化 추진에 따른 肯定的 環境效果 극대화 방안
- 환경문제의 範圍-국내적, 지역적 혹은 지구적 환경문제- 및 段階-제품의 생산, 소비 혹은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문제-를 다자간 무역규범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 등

○ 향후 약 2년여간 WTO 貿易·環境 委員會에서는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포함하여) 각종 조치를 다자간 무역규범內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환경목적의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과 무역자유화를 기반으로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開途國간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多者間 貿易規範을 解析, 補完 혹은 修訂하는 문제에 대해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UN 持續開發委員會에서는 무엇보다도 財源調達 및 技術移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메카니즘이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어 이들 메카니즘에 대한 유용성 및 시행가능성이 타진될 것으로 전망됨.

○ 94년 제 2차 회의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메카니즘들이 매우 초보적인 형태로 제시되었는 바, 95년 제 3차 회의에서는 이들 메카니즘의 實效性, 施行可能性, 施行樣式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가 報告되고 論議될 것임.

- 또한 제 1차 회의시 결정된 「議題 21」 履行評價計劃에 따라 95년에는 山林, 生物多樣性, 沙漠化 部門이 평가될 예정인 바, 특히 山林部門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는 山林原則(forest principle)의 후속작업을 둘러싸고 自國 산림자원에 대한 固有의 開發權을 주장하는 산림자원保有 開途國과 산림자원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려는 先進國간 논란이 예상된다.
- 94년 우리나라는 바젤協約, 生物多樣性協約 등의 國際環境協約에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이들 국제환경협약이 요구하는 義務事項을 준수하게 됨에 따라 여러가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 몬트리올 議定書 改正案에 따라 할론은 94년부터 100% 삭감, CFC는 94년부터 75%, 96년부터는 100% 삭감, 過渡物質인 HCFC는 96년부터 89년 수준으로 동결, 2004년부터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삭감되어야 함.
- 바젤協約, 生物多樣性協約,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에 관한 協約 등이 요구하는 교역제한조치에 따라 일부 원자재의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氣候變化協約이 1994년 4월 발효됨에 따라 國家報告書의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현재 우리나라도 國家報告書를 작성중임.
- 또한 환경문제만을 전담하는 유일한 재정기구인 地球環境金融(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이 재원보충 및 조직개편 과정을 거쳐 GEF II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는 560만 달러를 출연하며 이에 가입하였음. 앞으로 지구환경금융은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基金도 受託, 運營하게 될 것임.

(2) 우리의 對應

- 國際環境問題의 전개 및 그 파급효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環境對策, 産業對策, 協商對策이 필요함.

- 環境對策：환경 基準 및 規制의 강화, 환경관련 制度의 정비 및 人的·技術的 能力的 양적·질적 개선 등
- 産業對策：각종 국제환경협약 의무사항 등이 야기하는 産業別 과급효과를 파악하여 미리 對備策 마련·시행. 大企業은 자체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中·小 企業에 대해서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情報擴散, 財政的·技術的 支援 등이 필요할 것임.
- 協商對策：우리 여건을 고려한 協商論理 開發, 협상 專門人力 확충, 정부 부처間 및 부처와 업계間 協助體制 강화 등
- 이와 같은 환경, 산업, 협상 대책은 政府(地球環境對策會議)를 중심으로 各界에서 추진중임.

—우리나라 경제는 貿易依存度가 매우 높으므로 무역-환경관련 협상에서도 多者間 貿易體制의 安定性을 유지·강화하면서 환경을 이유로 한 一方的 貿易措置 止揚, 多者間 貿易措置 濫用 抑制, 환경관련 조치 및 정책수단의 부당한 貿易障壁化 防止 등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입장일 것임.

○특히 WTO 무역·환경 위원회에서의 논의 진행과정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이와 함께 UNEP, UNCTAD, OECD 등 WTO 무역·환경 위원회의 작업 과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또한 UN 지속개발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제기되리라 예상되는 山林原則 後續協商에 대해서도 긴밀한 동향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이며,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 현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분석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의 출발점은 國內的으로 생산자,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經濟主體가 環境費用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費用으로 간주하는 認識의 轉換임.

4. 기타 新通商 이슈

(1) 勞動과 貿易의 연계

가. 現況과 課題

- 現행 勞動條件과 關聯法規를 볼 때 노동-무역의 연계 문제는 韓國에 불리하지 않으나 선진국의 勞動基準 關聯制度는 국내수준보다 높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한편 노동-무역의 연계로 인해 동남아 등 개도국 제품원가가 상승할 경우 輕工業部門의 競爭力 상실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中國 및 東南亞國家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이 한국경제에 반드시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음. 디자인, 연구개발은 국내에 특화하되 생산기지는 해외로 이전하는 등 構造調整過程에 있는 한국기업들은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음. 또한 長期的으로는 中國 및 東南亞國家의 經濟成長 鈍化는 한국제품의 海外市場 縮小를 의미함.

- 協商議題의 경우 구체적으로 쟁점이 될 勞動條件은 勞動三權 保障, 強制勞動 不許, 年少者 雇傭制限, 最低賃金, 勞動時間, 産業安全·保健 등 인건비 수준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바로 美 슈퍼301條에서 “불합리한 貿易慣行(unreasonable trade practice)”으로 명시한 것이기도 함.

나. 우리의 對應

— 현실적으로 노동 - 무역 연계 협상의 개시여부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미리 대비하여 國內制度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美國은 WTO에서 정식 의제화하려는 목적으로 勞動條件을 雙務關係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國內 勞動關聯法規 및 勞動條件의 點檢·整備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勞動三權 보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複數勞組 禁止, 第三者 介入禁止 등의 조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개정을 검토해야 함.

— 勞動基準法の 경우 産業構造調整, 企業經營革新을 위해서는 유연한 人力管理가 가능해야 하므로 變形勞動, 時間制勞動, 解雇 등이 용이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아동노동, 강제노동, 노동시간 등은 그 자체로서 별 문제가 없으며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法改正에 큰 무리가 없음. 그러나 産業安全·保健은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자 채용 등의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산재발생률이 높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작업장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産災豫防效果를 높일 수 있는 誘因監督體系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海外人力의 국내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外國人 人力管理制度를 전면 재검토하여, 公式化하되 社會的 費用을 最小化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中國 및 東南亞國家에 대한 직접투자의 低賃金の 利點은 매우 限時的일 것이므로 現地人力의 효율적인 訓練·管理가 필요.

○ 이를 위해 투자국의 勞動市場, 勞使關係制度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投資地域別로 한국계 현지기업들의 協議體가 구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과당경쟁 및 過熱된 인력스카우트를 방지하고 現地人力의 共同職業訓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

(2) 競爭政策과 貿易

가. 現況과 課題

—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多者間 貿易協商 등 貿易自由化를 위한 노력의 결과 국경간 貿易障壁이 크게 낮아지면서 세계경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經濟의 汎世界化가 진행됨.

○ 각국 기업의 “制限的 營業行爲(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와 각국 정부의 競爭政策과 制度의 차이는 국가간 경쟁여건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와 이에 따른 국가간 마찰을 야기시키고 있음.

— 競爭政策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조치들 (반덤핑, 수출자율규제)의 차원에서 논의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制限的 經營行爲 등 외국기업의 市場接近에 대한 構造的 障壁에 초점을 맞추어질 것으로 보임.

○ 이에 수출입카르텔, 수출업자간의 담합 등과 같이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垂直的 制限, 市場支配力 濫用, 기업간의 排他的 商慣行, 多國籍企業에 의한 내부거래 등 무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도 포함될 것임.

○ 또한 獨占禁止法의 適用除外分野 등 정부의 競爭政策, 반덤핑 등 국가의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不公正性을 해결하기 위해 競爭政策 운용의 강화와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 한편, 외국기업의 制限的 經營行爲와 외국정부의 엄격하지 않은 競爭政策과 制度, 그리고 競爭法·制度의 허술한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적 불공정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美國을 중심으로한 선진국들은 자국 獨占禁止法

의 域外適用을 확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인 論議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95년 1월 설립될 예정인 WTO 차원에서 경쟁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증대됨에 따라 競爭政策은 차기라운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 9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OECD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8개 OECD 競爭法·政策委員會 권고안 등에 따른 OECD 회원국과의 경쟁정책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임.
- 著名人士그룹(EPG)의 1·2차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APEC내에서 의 경쟁정책 협의도 향후 활성화될 것이 예상됨.
- 또한 韓·美 企業環境改善方案(PEI), 韓·美 經濟協力對話(DEC) 등을 통해 美國은 技術導入契約의 사전심사 등 국제계약에 대한 별도의 규제기준 폐지, 景品 등 판매촉진수단에 대한 규제완화, 獨占禁止法 적용제외분야의 축소, 事業者團體의 不公正慣行 규제 등을 요구해 왔는데, 경쟁정책과 관련된 이와 같은 美國의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확실함.

나. 우리의 對應

- 國際的인 차원의 獨占禁止法 집행강화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내 不公正行爲의 근절을 통한 競爭의 촉진을 위해서도 競爭關聯 법제의 개선과 효율적인 집행수단의 개발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입카르텔에 대한 규제강화, 獨占禁止法 適用除外分野의 축소, 流通去來秩序의 확립문제 등에 능동적 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競爭政策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대응하고 競爭政策의 國際規範化에 대응

하기 위한 競爭政策當局의 專門性이 제고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競爭法·制度和 企業慣行에 관한 정보수집과 이를 위한 전문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함.

- 競爭政策의 국제적인 논의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의 多者間, 地域間, 雙務間 협력모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다양한 채널의 협의를 통하여 선진국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競爭政策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통상마찰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특히 美國은 「國際 獨占禁止法 執行補助法」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獨占禁止法·制度의 강화와 자국의 獨占禁止法 域外適用을 위해 競爭政策과 관련된 韓·美間 協定을 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3) 技術과 貿易

가. 現況과 課題

- 기술정책과 무역의 연계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個別國家의 技術開發政策이 여타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自由貿易體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開途國들의 발전이 선진국 기술에 대한 무임승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문제삼으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부각되면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만약 기술정책과 무역의 연계가 公論化될 경우, UR 보조금분야 교섭에서 아직 명료치 않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技術開發補助金이 우선 대상이 될 것

으로 예상됨. 또한 최근 汎世界的인 技術保護趨勢를 감안할 때, 금번 UR협상결과 마련된 무역관련 知的財産權規範(TRIPs)을 더욱 강화하고 知的財産權을 침해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貿易制裁까지 포괄하는 多者間 規範의 제정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UR 보조금 규정의 75%, 50% 제한적용은 앞으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産業技術支援制度를 정비하는 동시에, 허용범위 내에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나. 우리의 對應

-WTO의 出帆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産業政策으로부터 技術政策과 같은 특정 산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 非産業政策을 요구하고 있으며, 科學技術분야의 世界化를 가속시키고 있으므로 技術外交 및 技術관련 國際協力の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技術開發, 技術移轉, 技術提携, 外國과의 共同開發 등 다양한 과제에 폭넓은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

-산업기술지원제도는 특정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청자금 개념에 의거 75%, 50% 제한을 준수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또한 직접적 보조금보다는 간접적 금융지원방식을 강화하도록 함.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 조성법」의 실시로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적인 기술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점을 두어야 함.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등 新지적재산권 분야의 범위확대와 함께 과거의 “인간-기계” 시스템이 “기계-人工知能”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기계와 컴퓨터의 교차 분야인 유연생산체제(FMS), 컴퓨터통합생산체제

(CIM) 등에 대한 科學技術차원의 육성정책개발이 艱요.

-標準化에 대한 需要가 급증, 技術標準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標準科學차원의 中長期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

-R&D에 대한 各國간의 相異한 支援체제 및 정책, R&D활동의 세계화에 따른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문제, R&D보조금의 제한 움직임에 대한 對應 方案 등 기존의 R&D관련 政策에 대한 國際化방향 수립이 艱요. 이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制度 및 體制의 정비 및 技術活動의 國際化 강화.

-엔지니어링技術市場이 개방에 대응, 엔지니어링産業 中長期정책수립 및 核心 엔지니어링技術의 적극 육성.

5. 韓 · 美 經濟協力

(1) 現況과 課題

-韓 · 美 兩國間 경제관계는 兩國間 貿易收支가 대략 均衡상태를 이루고 있음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日本, 中國, 臺灣 등이 계속 대규모 對美貿易黑字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韓國은 93년에는 단지 2억달러 黑字, (美國統計로는 23억달러 黑字) 94년 1-10월간에는 7.2억달러의 對美貿易赤字를 기록하였음.

○韓 · 美間 교역패턴이 바뀌면서 우리 輸出의 對美依存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美國의 對韓輸出이 증가되고 있음.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對美輸出이 계속 부진한 상태이며,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생활수준의 향

〈表 IV-1〉 미국의 주요 交易相對國別 貿易收支 現況

(단위 : 10억달러)

年度	韓國	日本	中國	臺灣	EU	總貿易收支
1988	-8.9	-51.8	-3.5	-12.6	-9.1	-118.5
1989	-6.2	-49.0	-6.2	-13.0	1.5	-109.0
1990	-4.1	-41.1	-10.4	-11.2	6.1	-101.0
1991	-1.5	-43.5	-12.7	-9.8	16.7	-66.3
1992	-2.1	-48.7	-18.2	-9.4	8.7	-82.9
1993	-2.3	-59.3	-22.8	-8.9	-1.1	-115.6

資料 : 美 商務部

상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美國企業의 韓國市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美國의 對韓 市場開放 壓力도 거세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開放化 정책에 따라 수입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韓·美間 貿易收支의 균형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表 IV-2〉 韓國의 對美輸出 依存度 變化推移

年度	對美輸出額 (백만달러)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比率(%)
1985	10,754	35.5
1986	13,880	40.0
1987	18,311	38.7
1988	21,404	35.3
1989	20,639	33.1
1990	19,360	29.8
1991	18,559	25.8
1992	18,090	23.6
1993	18,138	22.1

資料 : 「韓國主要經濟指標」, 통계청

— 韓·美 兩國은 최근 2년동안 韓·美 營業環境改善方案(Presidents' Economic Initiative, PEI)과 韓·美 經濟協力對話機構(Dialogue for Economic Coopera-

tion, DEC)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국간의 通商問題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兩國 新政府 출범이후 수차례에 걸친 頂上會談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원만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地域主義的 면에서 본 韓美관계는 주로 APEC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美國은 APEC 會員國들간의 경제발전 수준에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서 美國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先進國과 後進國사이에서 중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韓國의 역할을 중시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음. 따라서 APEC내에서의 韓·美間 通商關係는 매우 긴밀한 협조하에 전개되고 있음.

○ 韓國은 美國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APEC의 貿易投資委員會(CTI)의 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는 APEC내에서 韓國의 역할 및 협조에 대한 美國의 기대감을 역력히 나타내는 것임.

多者主義的인 면에서 본 韓·美關係는 UR 協商 타결과과정에서 나타났듯이 兩國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대립과 협조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는 협상분야에 따라 先進國 혹은 開途國과 입장을 같이하며 國益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이러한 韓·美間的 협조와 대립의 공존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韓國은 農産物分野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國別履行計劃書 제출과 관련하여 美國과 상당한 대립을 보였음.

○ 이러한 韓·美間的 협조와 대립이 병행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철강 협상, OECD 조선험상, OECD 가입 관련 협상 등 多者間關係속에서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韓·美 兩國間에 전반적으로 원만한 經濟關係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는 個別通商懸案들이 계속 발생하여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 美國은 지난 10월초에 발표한 수퍼 301조의 優先協商國慣行(PFCP) 지정에서 韓國內 수입자동차 문제를 憂慮分野(Area of Concern)에 포함시켰음.
 - 또한, 수입소세지 유통기한 문제로 시작된 농산물의 식품위생기준 및 수입 관행 관련사항에 대해서 美육류업계가 일반 301조에 따른 美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를 청원하였으며, USTR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밖에도 金融과 知的財産權(IPR) 分野 등이 양국간 주요 通商懸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IPR의 경우 우리제도가 UR/TRIPs 협정안에 일치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며, 1996년 OECD 가입을 위해서는 經常貿易外去來 및 자본이동자유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앞으로 IPR 및 金融分野에서의 韓·美間 通商摩擦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우리측의 주요 관심사항은 美國으로부터의 첨단기술이전을 위한 兩國間 산업 및 과학기술협력분야로서 韓·美 産業協力基金 및 韓·美 技術開發財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美國側은 막대한 財政赤字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제한된 美國政府의 역할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韓·美 兩國間에는 通商摩擦이 발생할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美國政府가 美國企業이 요구하는 通商壓力을 개별적으로 모두 韓國政府에 가함으로써 韓·美 通商關係가 개별기업(company-specific) 현안 위주의 通商懸案 해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임.
 - 또한, 韓國政府는 부처간 혹은 각 부처의 부서간 政策協議體制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通商問題를 자주 발생시키고 있음.

(2) 우리의 對應

—兩國間 總교역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추세는 양국 모두의 經濟成長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韓美 양국 모두가 앞으로 양국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면서 貿易收支 균형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貿易擴大均衡의 방향으로 經濟協力勞力을 기울여야 할 것임.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대 單一市場인 美國市場에서의 경쟁에 뒤져서는 결코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先進國으로의 진입도 어려워 질 것임. 따라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對美 輸出增大에 힘써야 할 것임.

○ 國際競爭力 제고를 위한 美國으로부터의 첨단 기술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國內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과 知的財産權 보호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美國으로부터 계속되는 市場開放壓力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경제의 世界化 및 先進化를 꾀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開放的 貿易政策을 펴나가야 할 것임.

○ 즉, 美國으로부터 제기되는 개별 通商懸案 해결위주의 수동적인 韓·美 通商關係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각종 제도를 先進國 수준으로 개선 하는데 힘써야 함. 특히, 美國이 주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制度 및 節次의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政府 각 部處間 혹은 部處內의 각 部署間의 정책협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정책의 立案 및 집행과정에서 對外通商關係와의 연관성을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通商問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즉, 최근의 소세지문제와 과거의 과소비억제운동과 같이 국내 정치·사회적인 면만을 고려하고 對外通商的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韓·美間의 큰 通商問題를 우리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임.

- 韓·美 通商關係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 수비적이므로 이를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美國市場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여 通商會談時 우리측의 요구사항으로 제기함으로써 협상과정에서 이용되어야 함.
- 우리기업들은 國內外 他企業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만을 너무 우려하여 그들의 불만사항을 政府關係者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美國이 제기하는 通商問題를 가능하면 美國內 他企業 및 산업 또는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홍보함으로써 美國內 논란을 불러일으켜 韓·美間 마찰보다는 美國內的인 문제로 전환시켜 美國內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방법의 보다 공격적인 대응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함.

- 우리국민의 世界化를 위한 의식 개선 홍보활동을 통하여 開放政策의 필요성과 이해득실을 일반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政府의 開放政策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시키고 韓·美間 通商摩擦에서 오는 국민의 反美감정 유발을 피해야 할 것임.
- 즉, 外國商品이 국내에 수입되면 우리경제를 해치고 外國資本이 국내에 유입되면 우리경제가 외세에 의해 지배된다는 매우 부정적이고 수구적이며 배타적인 국민의 사고방식이 개선되어야만 진정한 우리국민의 세계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최대 무역국인 美國과의 通商關係도 원만해 질 수 있을 것임.

6. 韓 · 日 經濟協力

(1) 現況과 課題

-90년대 들어 침체상태가 지속되어 온 韓 · 日間 교역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貨價値의 절상 등에 힘입은 對日輸出의 확대, 한국의 수출급증에 따른 부품, 기계 분야 등에서의 對日輸入 확대 등으로 94년중 크게 擴大되었으며, 일본의 對韓 直接投資도 증가세를 나타냈음.

-94년 1-10월 기간중 對日輸出은 109억200만달러로 前年同期比 16.4%, 對日輸入은 205억6,800만달러로 24.7% 증가하였음. 그러나, 對日 貿易赤字는 94년10월말 현재 前年同期比 25억3,300만달러 증가한 96억6,6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94년 전체로는 120억달러에 가까운 赤字가 예상됨.

○전기 및 전자,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은 높은 輸出增加勢를 나타냈으나, 고무제품, 섬유원료, 신발 등은 오히려 큰 폭으로 減少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對日輸入은 한국의 輸出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높은 成長을 시현함

〈表 IV-3〉

對日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

	'90	'91	'92	'93	'94.1~10
수 출	12,638 (-6.1)	12,356 (-0.2)	11,599 (-6.1)	11,564 (-0.3)	10,902 (16.4)
수 입	18,574 (6.4)	21,120 (14.0)	19,458 (-7.9)	20,016 (2.9)	20,568 (24.7)
무역수지	-5,936	-8,764	-7,858	-8,451	-9,666

註 : ()는 전년비 증가율

資料 : 무역협회 무역통계

에 따라 對日依存도가 높은 전자 및 전기부품, 기계류를 중심으로 큰 폭의 增加勢를 나타냈음.

—일본의 對韓 直接投資는 최근 增加경향을 나타내 94년1-9월중 對韓投資는 件數, 金額에서 작년동기비 55.7%, 62.6% 증가한 95건, 3억3,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투자분야는 製造業 분야보다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 94년 1-9월중 제조업분야에 대한 투자는 총투자 건수의 過半數를 넘는 51건의 투자를 기록하였으나, 금액에서는 6,800만달러로 총투자의 20.4%에 불과하였음.

○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宿泊業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무역업, 금융업의 順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 이상과 같은 서비스업에 치우친 對韓투자 추세는 日本企業의 海外進出이 최

〈表 IV-4〉

日本의 對韓 投資現況

(단위: 千달러)

年度	美 國		日 本		全 體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90	84 (27.5)	317,465 (39.6)	145 (47.5)	235,792 (29.4)	305	802,532
91	86 (29.1)	296,299 (21.2)	112 (37.8)	226,239 (16.2)	296	1,395,996
92	70 (29.7)	379,182 (42.4)	72 (30.5)	155,161 (17.4)	236	894,476
93	68 (24.5)	340,669 (32.6)	85 (30.6)	285,943 (27.4)	278	1,044,274
94.1~9	90 (29.0)	272,574 (24.6)	95 (30.6)	333,543 (30.1)	310	1,106,555

註 : () 내는 각국의 當該年度의 投資件數 및 投資金額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資料 : 財務部 經濟協力局, 〈外國人投資動向〉, 各年號.

근의 엔高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투자지역은 중국, 아세안 등이며 한국에 대한 투자 選好度는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극히 낮은 상태에 있다는 여러 조사결과와 일치하고 있음.

—한편 최근에는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에 대한 資本參與, 일본내에 研究開發部門의 설립 등을 통해 일본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본경제의 構造調整 진전과정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로 인한 土地價格의 下落, 장기간의 不況과 엔高 등으로 인한 일본경제의 구조조정, 일본기업의 급격한 海外進出 과정에서 야기된 剩餘 기술인력의 발생 등이 한국기업의 日本進出에 好機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일본정부, 특히 각 地方政府는 自國기업의 해외진출로 야기되고 있는 지방경제의 空洞化 우려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외국기업의 일본진출을 크게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日本進出 增加는 무엇보다도 WTO 체제의 출범 등을 앞두고 국가간, 기업간 競爭이 激化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기술흡수, 일본시장 진출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思考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轉換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2) 우리의 對應

—앞으로 對日輸出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전자 및 전기부품 등 일본과의 技術格差가 비교적 크지 않은 重化學工業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서의 수출증대 노력이 필요함.

○반면 의류, 신발 등 後發開途國에 대한 競爭力 喪失로 對日輸出이 減少하

고 있는 분야는 품질, 디자인 능력의 提高를 바탕으로 제품의 高級化, 多樣化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과의 地理的 近接性을 이용한 對日輸出商品의 개발도 필요하며, 여기에는 특히 상품의 신선도가 요구되는 農畜水産物 및 이의 가공식품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위해서는 도축과정 등에서의 위생시설 개선, 運送手段의 합리화, 日本人 消費者의 기호, 通關基準의 철저한 조사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우리기업의 對日 技術導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각 地方政府와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특히 中堅 機械기업의 日本進出을 유도할 필요가 크다고 사료됨.

- 엔高 등에 따른 일본기업의 海外進出로 일본산업의 空洞化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들 문제에 直接 直面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그 대책의 하나로 외국기업의 日本誘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인접한 큐우슈(九州) 등은 한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地域經濟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우리기업의 일본진출로 일본의 中央, 地方에 산재해 있는 각종 技術研究所 등 산업 인프라, 기술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며, 분야에 따라서는 일본내에서의 事業機會확대 가능성도 큰 것으로 생각됨.
- 또한 地方都市는 토지가격, 임금수준 등 附帶費用이 대도시에 비해 훨씬 低廉하며, 기술수준이 높은 다수의 中堅企業들이 지방에 立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엔高하에서 전반적인 일본기업의 海外投資는 中國, 아세안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높은 技術力, 일본과의 地理的 近接

性, 비교적 큰 규모의 國內市場 등은 일본기업의 投資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극대화하여 日本企業을 誘致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規制緩和 등과 같은 政府政策 次元에서의 投資環境 改善과 함께 진출기업이 한국에서의 기업활동 전반에서 직접 부딪치는 不合理한 문제의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한국이 가장 脆弱한 部品産業 발전과 관련이 있는 일본 中小, 中堅 機械業種의 對韓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日本 中小企業들의 상당수가 거래 母企業의 해외진출에 따른 同伴進出的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下請, 系列企業에 대한 영향력이 큰 大企業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냉전종식의 異國家간의 隣接地域間 經濟交流의 확대 가능성, 이를 통한 地方經濟의 活性化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日本의 각 地方政府, 특히 큐우슈, 토야마, 니이카타 등과 같은 東海연안 지역이 이들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活用한 日本市場 진출, 日本企業의 投資誘致 전략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더우기 이들 지역은 한국의 首都圈이나 釜山 등을 中心港湾 혹은 空港으로 하여 지역의 발전, 일본내에서의 立地強化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각 地方의 經濟 活性化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7. 韓 · EU 經濟協力

(1) EU統合 現況 및 展望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條約의 발효에 따라 출범한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은 EFTA와 함께 1994년 1월 1일 유럽經濟地域 (European Economic Area : EEA)을 형성함으로써 유럽대륙의 經濟統合이 확대 · 심화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지난 93년 1월 발효된 유럽單一市場(European Single Market)에 기초를 두고 통상 · 농업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EC차원의 共同政策을 거시경제 · 통화정책에까지도 확대한다는 장기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특히, 빠르면 97년까지, 그리고 늦어도 99년까지로 예정된 유럽中央銀行 (European Central Bank : ECB)의 설립과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이 완료될 경우, 유럽연합은 經濟通貨同盟(Economic and Monetary Union)으로 發展하게 됨.

-유럽經濟地域의 출범은 EU 12개 회원국과 EFTA 6개 회원국간에 상품, 사람, 자본 및 서비스가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單一市場의 形成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EEA가 世界最大의 共同經濟圈으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함.

○EFTA 회원국중 스위스의 EEA 가입조약은 국민투표에서 否決된 바 있으나, 역내 교역 및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EEA의 출범은 EFTA 主要國들의 公式的인 EU加入 협상을 촉진시키는 動

因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 1월 1일자로 EU의 會員國 擴大가 기정사실화 되었음.

- 우선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3국은 공식적인 EU가입 신청과 함께 國內節次를 完了하여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EU會員國이 됨.
- 그러나 노르웨이의 경우, 11월말의 국민투표에서 EU加入案이 否決되었음.
- 이에 따라, 1995년 EU는 15개 회원국을 가진 經濟統合體로 확대되며, 또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기된 공동 외교·안보정책이 실현될 경우 고도의 統合體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수년내에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舊東歐圈 국가들의 EU가입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汎유럽經濟圈의 형성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음.

- 그러나, 노르웨이의 EU가입 실패는 확대·심화일로에 있던 유럽統合 趨勢에 어느정도 制動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장래의 경제통합은 個別國家 차원의 經濟的 實益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커다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와 함께 EMU의 추진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거시경제·통화정책에서의 國家主權 問題도 향후 EU가 경제통합의 확대·심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重要과제임.

(2) 經濟協力 現況과 課題

- 1993년중 EU 각료이사회 韓國關係檢討報告書 承認, 韓·EU 閣僚會談에서의 知的財産權問題 타결 등 양국간의 심각한 懸案問題는 거의 解消되었으며 이에 따라 94년중 우호적인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음.

- 그러나, EU 의회가 1996년부터 GSP 供與 對象國에서 한국을 除外하기로

최근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EU 輸出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業界의 주도면밀한 對應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최근 EU가 개정을 검토중인, 美國 슈퍼301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新통상정책수단(NCPI)이 도입될 경우 域外國에 대한 通商壓力이 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應論理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됨.

— 韓 · EU 교역규모는 93년말 현재 196억달러 (수출 94억달러, 수입 102억달러)로서 우리나라 總交易의 11.8%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EU는 미국 · 일본 · 동남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네번째로 큰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對EU 輸出은 1986년부터 (89년 제외)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는 감소세를 나타냄.

- 이에 따라 1991년을 기하여 우리나라의 對EU 貿易收支가 赤字로 반전되었으며 EU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년의 14%에서 93년에는 11%로 하락하였음.
- 이와 같은 對EU 수출부진은 EU의 경기침체에 따른 輸入需要의 鈍化, 역내시장통합의 진전에 따른 貿易轉換效果(trade diversion effect)의 증대 및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쟁국의 市場蠶食 擴大 등에 주로 기인함.
- 품목별로는 과거 우리기업들의 주종상품이었던 섬유류, 신발 및 완구, 철강 등은 不振을 면치 못하는 반면, 전기 · 전자, 반도체, 기계 및 수송기기 등 새로운 戰略商品의 進出이 확대되는 특징을 나타냄.

— 9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EU 直接投資는 5억 6천만 달러로 최근 3-4년간

〈表 IV-5〉

우리나라의 對EU 交易動向

(백만불, %)

年 度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1988	8,161	23.2	6,050	31.0	2,111
1989	7,415	-9.2	6,499	7.4	916
1990	8,876	19.7	8,421	29.6	455
1991	9,728	9.6	9,879	17.3	-151
1992	9,233	-5.1	9,585	-3.0	-352
1993	9,415	2.0	10,170	6.1	-755
1994. 1-9	7,229	9.5	9,480	25.3	-2,180

註：前年(同期)比 增減率임.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0.3%로서 미주 (40.1%), 동남아 (38.0%)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이러한 對EU 직접투자 부진은 현지의 높은 人件費, 勞動條件에 대한 강한 규제 및 노동조합과의 마찰우려, 그리고 높은 現地部品使用 義務比率 등의 투자제약조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유럽기업의 對韓투자도 최근 製造業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93년말 현재 26억달러로 日本(44억달러), 美國(32억달러)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데 그침.

○ 우리경제의 規制緩和 일정의 진전과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外國人直接投資 및 市場開放이 임박해짐에 따라 95년부터는 독일·네덜란드의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럽係 企業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3) 우리의 對應

가. EU經濟統合에 대한 對應

- EU統合의 심화·확대는 기본적으로 역외국들에게 EU의 經濟力 제고에 따른 輸入需要의 增大라는 肯定的 효과와 유럽요새화에 따른 貿易轉換效果의 증대라는 否定的 효과를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EU통합의 진전은 동시에 세계경제의 地域主義化를 深化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인 바, 우리의 높은 對外依存度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우선, APEC내에서 회원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NAFTA, ASEAN 등 他 지역경제협력체와의 均衡的인 協力方案 모색이 지역주의화 추세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는 代案이 될 수 있음.
 - 또한 EU 각 회원국과의 雙務協力 확대 및 현안과제로 남아 있는 韓·EU 基本協定の 締結 등을 추진함으로써 對EU 협력확대를 위한 制度的 基盤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
 - EU회원국 확대에 의한 汎유럽經濟圈의 형성에 대비하여 현재 투자여건이 양호한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의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진출을 확대하여 既得權을 保障받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EU統合의 진전에 따라 原產地規程 및 反덤핑 등 輸入規制의 強化, 그리고 상호주의의 요구를 포함한 保護主義 경향의 擴大가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함.
 - 수입규제의 강화에 대하여서는 關聯法規의 면밀한 檢討 및 競爭國의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책 연구 등 체계적인 對應戰略의 마련이 필요함.
 - 유럽産 自動車에 대한 輸入開放 등 相互主義 要求의 증대 전망과 관련하

여 우리경제의 자유화·개방화 일정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通商懸案의 대두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韓·EU 經濟協力強化 方案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反덤핑提訴의 증가, EU의회의 GSP 供與對象國에서 韓國除外 결정 등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이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이고 綜合的인 市場擴大戰略의 수립을 통하여 이를 타개해야 할 것임.

-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 및 수송기기 등의 분야에서 나타난 우리의 比較優位를 效率的으로 活用하여 EU 주요국과의 產業內 貿易(intra-industry trade)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同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東南亞·中南美 지역과의 진출동기와는 差別化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現地生産이라는 측면보다는 EU단일시장에의 進入能力 제고, 현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新技術 도입의 촉진, 현지활동의 확대를 통한 市場情報의 수집 강화 등의 측면도 고려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이와 동시에 EU에서 자주 개최되는 각종 산업별 博覽會에 대한 中小企業들의 적극적인 參與를 유도하여 신상품의 소개 및 최신상품정보의 수집, 그리고 기업의 PR 능력제고 등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8. 韓·中 經濟協力

(1) 現況과 展望

—韓·中經濟交流은 92년 수교이후 급속한 확대추세를 유지하여 양국간의 經

濟的 相互依存度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으나, 94년들어 부문별로는 다소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음.(〈表 IV-6, 7〉 참조)

- 對中國 輸出은 지난 2년간의 급증세가 크게 누그러져 94년중 10월까지 22.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4년중에는 60억달러(總輸出의 6.5% 수준)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 반면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은 지난 2년간의 침체에서 탈피하여 4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4년중 약 54억달러(總輸入의 5.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
-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는 급증세를 유지하여 94년 1년동안에 약 1,000건의(약 7억5천만달러) 신규투자 허가(신고)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94년말 허가기준 누계로는 약 2,000건, 17억달러(투자실행액은 약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表 IV-6〉

韓·中 交易推移

(단위: 백만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1~10
對中國輸出 ¹	437	585	1,003	2,654	5,151	4,941
전년대비증가율(%)	17.5	33.7	71.4	164.7	94.1	22.6
총수출중의 비중(%)	0.7	0.9	1.4	3.5	6.2	6.5
수출증가기여도 ² (%)	-	5.6	6.1	35.0	43.0	9.7
對中國輸入 ¹	1,705	2,268	3,441	3,724	3,929	4,468
전년대비증가율(%)	22.9	33.0	51.7	8.3	5.5	40.1
총수입중의 비중(%)	2.8	3.2	4.2	4.6	4.7	5.4

註 : 1. 本 表는 關稅廳의 通關基準에 의한 통계에 근거하여 홍콩을 통한 間接輸出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總輸出 증가분에서 對中國 輸出 증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칭함.

資料 : 貿易協會 KOTIS.

94년중에는 양국간 정상외교에 수반하여 二重課稅防止協定, 航空協定이 체결되어 양국간 경제교류에 대한 장애요소 제거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産業協力協定을 체결하여 中長期的 産業協力の 기초를 구축하였음.

○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생산,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생산, TDX 공동생산 및 차세대 TDX 공동개발, HDTV 개발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産業協力協定은 양국간의 중장기적인 산업협력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95년중의 양국간 經濟交流는 지난 수년간 나타났던 急增趨勢에서 보다 안정적인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 전망됨.

○ 中國經濟가 95년중 10% 이내의 보다 安定的 成長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對中國 輸出은 94년과 비슷한 20% 정도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95년중 국내경제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對中國 輸入도 금년과 비슷한 40% 정도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95년중 韓國企業의 對中國 투자는 94년 보다 건수면에서는 다소 줄어드는 반면, 大規模投資의 증가에 따라 투자금액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양국간 通商關係에 있어서는 交易의 擴大均衡 추세와 韓國企業의 對中國 投資의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큰 쟁점없이 무난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음 몇 분야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임.

○ 中國측은 貿易收支 赤字(중국측 통계에 따른) 개선, 한국의 調整關稅 등 수입규제조치 철폐, 中國產 農産物 수입시장 개방 확대,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의 노사분규 등 각종 문제 등을 통상 현안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임.

○ 양국간 産業協力 프로젝트로 진행중인 중형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최종 조립공정의 입지, 연구개발 기지의 입지, 제3국 기술제휴선의 선정 등의 문

〈表 IV-7〉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¹ 推移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1988~89	1990	1991	1992	1993	1994.1~8
허가·신고기준 건 수	14 (2.3)	38 (7.4)	112 (20.8)	269 (42.6)	617 (59.9)	699 (53.7)
금 액	13.2 (0.9)	54.5 (3.4)	84.7 (5.3)	221.9 (18.3)	622.4 (33.2)	530.5 (23.2)
건당 평균규모	0.9	1.4	0.8	0.8	1.0	0.8
실투자기준 건 수	7 (1.6)	23 (6.8)	69 (15.2)	171 (34.2)	377 (55.3)	523 (55.9)
금 액	6.4 (0.8)	16.0 (1.7)	42.5 (3.8)	141.2 (11.3)	269.5 (20.9)	495.0 (38.8)

註 : ()은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1. 제3국을 거쳐 이루어진 迂廻投資는 제외되어 있음.

資料 : 韓國銀行

제에 관한 양국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임.

- 이밖에 어업분쟁의 증가와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대립, 환경 문제 등도 중장기적인 문제로서 등장하게 될 것임.

(2) 우리의 對應

—中國經濟의 중장기적 변화 및 韓中 經濟關係의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하여 양국간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함.

- 韓國經濟와 中國經濟는 지속적으로 보완·협력의 상호의존관계와 상호경쟁 관계를 모두 심화시켜갈 것으로 전망됨.
- 韓國은 한편으로 中國經濟의 成長과 開放을 국내경제의 성장에 활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 국내 技術·産業의 高度化를 통하여 지속적인 상호보완 관

계를 창출해나가야 할 것임.

中國經濟의 지속적 고도성장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中國市場에 진출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심화시켜야 할 것임.

- 中國의 經濟開發 과정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産業用 中間財·原資材 輸出과 구매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沿海地方을 대상으로 하는 耐久消費財 輸出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中國의 輸入代替·産業育成 政策에 대응하여 直接投資를 통한 內需市場 진출을 가시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中國市場 진출에 핵심요소가 되는 資金調達(finan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DCF, 年拂輸出資金, 海外投資資金의 확대 및 國際金融機構와 國際金融市場 자금의 효과적 활용을 강구해야 함.

1995년중 中國의 GATT 및 WTO 가입이 전망됨에 따라 調整關稅와 같은 직접적인 輸入規制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검역 및 표준·검사제의 강화,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을 통하여 輸入擴大에 따르는 副作用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中國의 지역별 특성, 地域別 市場分割, 地方政府의 경제적 자주권 등을 고려한 지역별 경제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經濟的 權限과 실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中國의 지방정부에 대응할 국내창구의 설정을 통한 효과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中小企業의 中國進出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中國側 정부기관·기업과의 紛爭, 現地法人에서의 노사분규, 한국 투자기업

간의 過當競爭 등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中國의 經濟·經營環境에 대한 체계적인 情報提供, 현지기업관리자 훈련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9. 亞·太 經濟協力

(1) 現況 및 課題

가. APEC 指導者會議 및 閣僚會議의 成果

-1994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指導者會議은 亞·太經濟協力の 진전에 획기적인 轉機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이 회의에서는 APEC 18개 회원국의 지도자들간에 토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는 “보고르 宣言”이 채택되었음.

○ 亞·太經濟協력이 지향해야 할 遠大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보고르선언은 協定이나 條約과 같은 拘束力은 갖고 있지 않으나, 域內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진행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指針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보고르 선언을 계기로 지금까지 느슨한 經濟協力體에 머물렀던 APEC이 域內貿易自由化라는 보다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으며, 오사카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갖기로 합의하는 등 域內국간 협력을 加速化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보고르 선언은 域內 開發途上國에 대한 配慮, 多者間 交易秩序 強化, 經濟開發을 위한 協力, 域內 貿易 및 投資 自由化 등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域內 선진국은 域內 개도국의 安定的이고 持續的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것을 公表하였는 바, 향후 선진국은 對개도국 기술이전 및 자

본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대한 개도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UR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APEC은 새로이 출범하는 WTO體制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등 향후 汎世界的 自由貿易秩序를 강화해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 역내 개도국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經濟開發을 위한 協力”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人的資源 및 산업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그 구체적 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한편 보고르 선언의 核心은 역내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데, 先進工業國은 2010년 까지, 開發途上國은 2020년 까지 각각 자유화를 이룩한다는 2단계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日本이 議長國이 되는 1995년도 APEC 회의에서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별 自由化 履行計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자유화 대상분야, 선진산업국과 개발도상국의 分類基準, 역외국에 대한 最惠國 待遇 부여 문제, APEC 자유화 조치의 구속력 여부 등 쟁점으로 말미암아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는 機構化에도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음.

- 지도자회의는 APE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APEC의 發展方向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강한 推進力을 부여하게 될 것임.
- 그간 臨時그룹으로 운영해 오던 經濟動向 및 懸案그룹(Ad hoc Group on Economic Trends and Issues)을 經濟委員會(Economic Committee, EC)로 常

設機構化하고,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산하에 “通關節次 小委員會(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와 “標準 및 適合 小委員會(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를 발족시켰음. 또한 사무국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였음.

- 실질적인 經濟協力の 주체가 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작년에 발족한 太平洋經濟人포럼(Pacific Business Forum, PBF)을 민간부문 諮問機構로 격상하기로 함.
- 亞·太 自由貿易方案을 제시한 바 있는 著名人士그룹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함.

나. APEC의 展望

— APEC은 현재의 協議體(Forum) 형태에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經濟協力を 추구하는 協力機構(Organization)로 발전할 전망이다.

- 보고르 선언을 통하여 내외에 公表된 域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계획은 APEC의 장래에 대한 疑懼心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음.
- 각료회의가 채택한 “非拘束的 亞·太投資原則”은 域내투자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임.

— APEC의 발전은 汎世界的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93년 기준으로 世界交易의 44.3%, 世界 GDP의 57.6%를 차지하는 거대한 亞·太地域에서 域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비롯한 각종 經濟協력이 진전될 경우, APEC은 WTO발전을 지지하고 多者主義的 交易秩序를 선도해 나가게 될 것임.
- APEC은 유럽연합(EU)의 排他性 및 差別性을 견제할 수 있으며 域내에 속한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과 아세안自由貿易協定(AFTA)이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신규회원국 참가 猶豫期間(moratorium)이 끝나는 97년부터 APEC의 양적 팽창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의 남미국가와 몽고,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의 아시아국가들이 회원국 加入申請을 낸 상태임.
- 특히 北韓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가입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음.

다. APEC의 向後課題

—日本이 의장국으로 취임하는 95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課題는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各國別 自由化計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 자유화에 관한 정치적 의지는 천명되었으나, 自由化의 精確한 概念, 즉 자유화의 對象範圍, 자유화의 完成程度 및 구체적인 履行日程, 국별 또는 산업별 例外許容與否, 역외국에 대한 最惠國待遇 문제 등 미결사항에 대한 논의가 高位實務會議 및 閣僚會議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둘러싼 선진국 개도국간의 의견차이를 互惠的 방식의 讓許를 통하여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즉 자유화가 선진국의 對개도국 市場接近을 圓滑하게 하는 조치인 만큼, 기술이전이나 産業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공여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시장개방을 補償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自由化에 대한 역내국간 意見差異를 고려할 때, 자유화일정은 우선 紛爭解決節次의 마련, 標準調和, 巨視經濟協調와 같은 무역활성화(trade facilitation)조치로 부터 시작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早期履行, 역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의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임.

—APEC을 통한 역내국간 신뢰구축은 經濟協力분야 이외에도 북한 핵문제 등

안보분야의 현안 처리에 있어 협력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 작년에 발족한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더불어 APEC은 地域安保 논의에 가장 적합한 장이 될 것임.
- 북한의 APEC 가입은 지역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肯定的으로 검토하게 될 것임.

(2) 우리의 對應

— 多者間 交易秩序의 受惠者인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서의 협조강화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加速化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APEC은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 경제블록의 배타성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과의 양자간 通商摩擦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중국이나 아세안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시장접근 및 투자확대를 容易하게 함과 아울러, NAFTA 출범으로 인한 미주시장에서의 不利한 位置를 극복하고 폐쇄적인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韓國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역·투자위원회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바, 역내 先進國 開途國間 異見을 조정하는 한편, 아시아국가와 미주국가간의 교량역할을 수행함으로써 亞·太經濟協力の 심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보고르선언에 따라 APEC 국가간 무역자유화협상이 개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바람직한 自由化計劃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WTO 발족에 따른 제반 의무이행과, 96년에 OECD에 가입할 경우 추가되

는 자본 및 서비스분야의 자유화 이행을 고려할 때 APEC에서의 자유화 의무가 追加的인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 따라서 우리 경제의 世界化라는 巨視的 맥락에서 受動的 對應이 아닌 主體的 選擇으로 자유화를 추진해야할 것임.

10. 東北亞 經濟協力

(1) 現況 및 課題

— 東北亞地域은 매우 力動的인 經濟를 지니고 있어 經濟 및 交易면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른 成長을 보이고 있음.

- 經濟規模면에서도 93년 현재 東北亞地域의 핵심국가인 日本, 中國 및 韓國의 GNP만도 전세계 국가들의 總GNP의 23%에 달함.

- 그리고 東北亞 經濟協力の 潛在力은 지역국가간 賦存要素 및 產業構造의 補完性이 높은 데에서 기인함.

— 이와 같은 東北亞地域의 높은 經濟協力 潛在力에도 불구하고, 東北亞地域內 經濟協力 水準은 西유럽은 물론이고 亞·太地域내에서도 北美나 東南亞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임.

- 이는 冷戰時代에 이념의 장벽으로 인해 地理的 隣接性과 經濟的 補完性에도 불구하고 東北亞地域內 經濟協력이 실현되지 못한 때문이며, 현재도 北韓이 동북아시아의 政治的·軍事的 緊張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舊社會主義國家들이 經濟改革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국가에 舊體制의 慣行이 남아 있고 市場經濟制度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최근 동북아지역내에서 交易 및 投資 등 兩者間 經濟協力이 빠른 속도의 伸張勢를 보이고 있으며, 交通, 通信 및 環境分野에서의 협력도 크게 진전되고 있음.

- 아직까지 동북아 각국의 東北亞 域內交易에 대한 依存度는 낮으나 域內交易이 타교역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直接投資의 경우 韓國과 日本의 1985~93년간 동북아지역내 累積投資規模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최근 最大 投資對象國인 中國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에 기인함.
-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동북아지역의 交通관련 協力事業도 최근 陸上·海上 및 航空部門에서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고, 通信部門에서는 韓·러·日간 海底케이블이 건설 중에 있어 東北亞가 시베리아 橫斷通信網을 통해 유럽과의 연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環境分野에서도 동북아지역의 政府間, 環境部處間 그리고 民間次元에서의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

—東北亞 經濟協力 중 小地域에서의 多者間協力 모델인 豆滿江地域 開發事業은 91년 7월 울란바토르회의 이후 4차례에 걸쳐 計劃管理委員會(PMC)會議가 개최되었음.

- 그러나 그 동안 豆滿江地域 開發事業에 관한 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中國, 러시아 및 北韓은 社會間接資本施設 건설에 있어 共同開發政策을 펴기보다는 각자의 희망사업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北韓의 核問題와 러시아측의 소극적인 자세가 豆滿江地域 開發事業의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북아지역내 兩者間 및 多者間 經濟協力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한 韓國, 中國 및 日本 등에서 學界를 중심으로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論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東北亞 經濟協力の 증진을 위한 組織的인 努力은 거의 없는 상태임.

- 이는 東北亞 經濟協力이 일종의 經濟統合으로 여겨져 域外國에게 배타적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여 각국의 中央政府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東北亞 經濟協力の 活性化를 주도적으로 이끌 中心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日本 및 中國은 東北亞 經濟協력을 주도할 경우 이 지역에서 霸權主義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으며, 특히 日本은 자신이 東北亞 經濟協력을 선도할 경우 받게 될 財政的 負擔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함.

(2) 우리의 對應

- 地理的 位置, 經濟發展度 및 經濟規模면에서 동북아지역에서 中間者的 立場에 있으며, 南·北韓 關係改善 및 韓半島 統一을 위해 東北亞 經濟協力이 절실히 필요한 韓國은 東北亞 經濟協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
-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韓國이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共感帶 형성과 필요한 制度化 등을 논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東北亞 經濟協力 增進機構」의 발족을 제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 모임의 구성은 關聯國의 政府, 業界 및 學界의 대표로 함.
 - 이 모임에는 地理的으로는 東北亞地域에 속해 있지 않지만 東北亞地域의 經濟 및 政治·安保分野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美國의 참여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이는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성격을 띤 東北亞 經濟協力の 이념에도 부합되며, 美國이 참여할 경우 東北亞 經濟協力에 대한 域外國으로 부터의 불필요한 의구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 東北亞國家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와의 兩者間 혹은 多者間 經濟協力에서 걸림돌로 남아 있는 諸般制度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國際規範을 준수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세계 모든 企業들이 經濟活動을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環境을 韓國에 조성하여야 할 것임.
- 東北亞地域內 都市(地方)間 經濟交流의 증진을 위해, 地方分權化를 적극 추진하고 對外經濟活動에 대한 地方의 權限을 크게 확대시켜야 할 것임.
- 南北經濟協力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과 南北統一 달성을 위한 여건마련을 염두에 두고 東北亞 經濟協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東北亞 經濟協力이라는 多者間 틀 속에서 협력함으로써 相互 信賴構築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긴요함.
 - 또한 東北亞 經濟協력을 통해 北韓의 開放을 유도하며, 南北韓間 異質性을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産業政策면에서는 우리 産業政策의 방향이 日本 및 中國의 産業정책의 방향과 유사하여 3국간 産業의 中층적 競爭 및 協力構造의 형성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産業構造調整을 촉진시키며 日本 및 中國과의 産業協力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동북아 경제협력의 진전에 따른 物動量의 增大 및 韓國의 地理的 位置를 감안하여 東北亞 國際交通의 中心地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임.
 - 永宗島 國際空港을 건설하고 港灣施設을 확장하며 東北亞 交通의 中추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連結鐵道 및 道路網의 구축이 필요
- 超高速 情報通信網을 조속히 추진함에 있어 日本, 中國 등과 연구 및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東北亞國家 政府間 通信協力體制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國內 通信産業의 經濟力을 강화하고 國産 通信器機 수출 확대 등 民間 通信業體의 동북아지역에서의 活動에 대한 支援體制 구축

— 國土開發에 있어서도 環黃海 經濟協力에 대응한 西海岸地域의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한 西海岸地域 開發軸과 環東海 經濟協力에 대응한 東海岸地域의 開發軸, 그리고 兩軸을 연결하는 東西開發軸을 형성하여 東北亞 經濟協力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長期的으로 統一國土를 전제로 한반도 전체 國土利用의 極大化에 초점을 둔 開發戰略 수립

— 각종 東北亞 環境協力 協議體간의 一致 및 調和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財政造成과 技術移轉을 중시하는 中國과 越境性 환경오염에 대한 協力메카니즘의 구축을 강조하는 日本의 입장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韓國은 보다 적극적인 中間役割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내 多者間 環境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1. 對開途國 經濟協力

(1) 開途國經濟 現況 및 展望

— 開途國의 94년 평균성장율이 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저축률은 70년대의 15% 수준에서 현재는 25%로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民營化推進, 대규모 下部構造投資 등으로 資本需要도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수년간 資本需要는

貯蓄增加率보다 더 빠른 속도로 增加될 전망됨.

-93년 開途國의 總 輸出은 前년대비 7.4% 增加하였으며 輸入은 10.1%로 增加하여 빠른 교역 增加율을 보이고 있으며 94년 1/4분기에는 輸出增加率이 輸入增加率을 上廻하면서 前년도와 비슷한 增加率을 보였음.

<아시아>

-아시아는 年평균 實質經濟成長率이 6~7%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으로 성장하는 지역이며 특히 中國과 ASEAN은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으며 印度와 베트남 등도 본격적인 經濟成長段階로 진입하고 있음.

-아시아지역은 높은 人口比重을 차지하고 있어 世界環境과 自然資源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自然環境에 대한 保護조치가 미흡할 경우 지속적인 經濟成長에 害를 받을 것임.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현재 政治·經濟的인 體制轉換過程에 있음. 이러한 變化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人權問題, 民主發展, 地域安全保障, 貧困問題 人口增加, 都市集中, 環境破壞 問題 등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사하라사막을 중심으로 南사하라와 北사하라로 구분되며 아프리카는 전세계 GNP의 단지 1%를 생산하고 있음.

○南사하라 국가들은 대부분 세계최빈國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5억 人口 중 반 이상이 빈곤수준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北사하라 국가들은 人的開發水準이 “중간” 정도이며, 지난 30년 동안 발전

속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改革바람 :

-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등의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인종차별을 철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
- 아프리카의 40개 이상의 국가들은 현재 어려운 가운데 構造調整, 市場經濟導入 등을 통한 개혁과정에 있음.

〈中·南美〉

-80년대에 대부분의 南美諸國과 카리브해연안국가들은 과도한 외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90년대 이후 構造調整政策을 실시한 결과 많은 나라에서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났다.

- 다수의 민주국가 등장으로 남미국가들의 인권상황은 상당히 개선되었음.
- 남미국가들과 카리브해연안국가들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의 잠재력은 충분히 있으나 경제성장과 社會的인 衡平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성장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됨.

-최근 南美와 카리브해연안국가들은 지역협력기반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10년간 年平均經濟成長은 4~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地域內貿易은 증가하고 물가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2) 對開途國 經濟協力 現況 및 展望

-韓國의 對開途國輸出은 93년 前年對比 17% 증가하였으며 輸入은 6.6% 증가하였음. 94년 1~10월 對開途國 輸出과 輸入이 각각 377억 달러와 272억 달러로 94년말까지 전년대비 각각 10% 정도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增加趨勢

는 9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94년 1~10월 對開途國 投資 중 中國을 포함한 北方地域 開途國에 96건, 2억 4,280만 달러가 投資許可되었음. ASEAN에 대한 投資許可는 같은 기간 동안 296건, 2억 9,110만 달러가 허가되어 금액에 있어 93년 한해보다 무려 142%가 증가하였음.

-93년 우리나라의 對外援助(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는 1억 7,640만 달러로 전년대비 53.1% 증가하였으며 GNP 대비 ODA비율도 전년의 0.04%에서 0.05%로 상승하였음.

○ 이 중 兩者間 協力과 多者間 協력이 각각 60.6%와 39.4%를 차지하고 있으며 EDCF자금의 支援이 활성화됨에 따라 93년 有償援助가 전년도에 비해 4.5배 증가한 6,970만 달러로 전체 ODA의 39.5%에 달했음.

○ 國際機構에 대한 출자나 분담금 등 多者間 協력의 비중이 줄어들고 兩者間協力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93년 無償援助는 109개국에 1,200만 달러를 제공되었는데 아프리카에 전체의 31.0%로 가장 많이 공여되었고 다음으로 중남미가 28.4%, 아시아 18.8%, 중동 9.3%, 동구 6.5% 등으로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지원되었음.

-對外經濟協力基金(EDCF)을 통한 有償協力は 借款事業으로 93년 말까지 19개국 233개사업에 3.2억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海外投融資資金으로 2개국 2개 사업에 200만 달러가 승인 되었음.

○ 향후 기승인된 사업에 대한 기금인출이 본격화되면서 인출액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3) 우리의 對應

— 國際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적극 참여하면서 開放을 통한 우리경제의 質的 向上과 先進化를 추진하여야 하며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는 國際社會에서 우리의 위상에 상응하도록 對開發途國 經濟援助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韓國의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OECD 開發援助委員會(DAC)의 92년 평균 비율인 0.3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OECD 권고수준인 0.7%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 96년 OECD 加入을 앞두고 ODA 규모를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에 상응하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기존의 經濟協力體系를 補完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無償援助의 경우 93년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最貧開發途國에 각각 31%와 28.4%를 지원하여 전체 60%를 이지역에 집중하였는데 一回性 또는 政治的인 이유의 無償援助支援보다는 일정한 금액과 한시적인 지원으로 開發途國이 自立基盤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技術協力은 人力訓練과 技術用役支援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여러 機關에서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는 人力訓練을 體系化 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을 마친 인력을 現地 韓國人 投資企業에 고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技術用役支援의 경우 우리기업의 진출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韓國企業의 진출을 위한 事前調査 및 情報拾得 등의 활동과 연계시켜야 함.

— 최근 OECD를 중심으로 先進國들은 원조의 量보다 質을 중시한다는 목표 아래 원조프로젝트에 대한 評價機能을 강화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성격도 ‘開

途國의 발전을 開途國 스스로의 주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開途國의 원조 운용능력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음.

○우리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開途國이 主導하고 사회발전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援助形態를 개발하여야 할 것임.

-改革을 추진하는 많은 개도국에서 外國資本과 技術協力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적합한 지원방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특히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開發獨裁形態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의 과거 開發經驗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전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低開發 民主主義國家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參與的 開發과 人力開發投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參與的인 開發에서는 중앙정부보다 下位機關이나 地方政府와의 協력이 강조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생산활동참여도 강조하여야 함.

12. 南北韓 經濟 協力

(1) 交流現況

-南北韓 간의 經濟交流은 우리 정부의 對北韓 교역 문호개방 조치가 결정된 1988년 10월 이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음.

○1988년 4개 품목, 104만 달러 상당의 北韓商品의 對南 搬入이 承認된 이래, 남북교역은 93년 12월까지 通關실적 기준 187개 품목, 총5억346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거래규모, 품목수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할 경우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함.

93년 남북 총교역액은 通關基準으로 92년 對比 7.6% 증가한 1억8,659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對北 搬入 601건 1억7,817만 달러와 搬出 97건 842.5만 달러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의 對北搬入 위주 교역패턴이 유지되고 있음.

- 한편 金額基準 물품 통관율은 89년 84%, 90년 53.7%, 91년 57.9%로 비교적 저조하였으나, 92년에 81.2%로 증가한 이후 93년 現在 93.9%를 기록하고 있어(〈表 IV-8, 9〉 참조) 남북교역은 交易成事率만을 基準으로 判斷할 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94년 10월까지의 남북교역 실적 누계(승인기준)는 반입 475건 1억 5,267만 달러, 반출 123건 1568만 달러, 합계 598건 1억6835.1만 달러로 전년 동기 실적인 434건 1억7,288.5만 달러에 비해 2.6% 감소하였음
- 한편 94년 10월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총84건 44개 품목 1,604.2만 달러로, 금액 면에서 전월의 1,545.4만 달러의 96.3%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전년 同月の 1,750.7만 달러에 비해서는 8.4%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남북교역의 정체 또는 감소는 일차적으로 남북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치·이념적 對峙 및 핵문제로 증폭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보다 根本的으로는 法的, 制度的 장치의 미비, 직교역 制限과 함께 북한 상품의 품질 및 공급능력의 한계 등이 交易擴大의 실질적인 障礙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對北主要 搬入品目은 鐵鋼, 金屬, 農·林産物과 같은 일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주요 搬出品目은 纖維, 化學, 電子製品 및 생필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93년에 북한으로부터 搬入된 주요품목 중 金塊, 亞鉛塊, 비레트등 및 銀塊

와 같은 鑛産物이 총 반입액의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두 한약재, 건고사리와 같은 農·林産物과 임가공 제품인 바지, 자켓 및 물수건 등이 10대 교역 품목을 구성하고 있음.

- 반면 對北 주종 搬出品目은 기존의 화학제품 중심에서 섬유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위탁 가공이 활성화되면서 完製品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속품의 반출이 급증한데서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91년 이후 推進되고 있는 對北 위탁가공무역은 최근 국내의 고임금 현상으로 초래된 섬유, 봉제, 신발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회복하는 手段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93년 對北 위탁가공 승인실적은 총 44건으로 반입 438만 달러, 반출 361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의 10건 56만 달러(반입 기준)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7.9배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한편 위탁가공 참여 업체도 남한이 5개에서 11개로, 북한이 4에서 7개 업체로 각각 증가했을 뿐 아니라 관련 품목수도 8에서 17개 업종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위탁가공 사업은 비록 현재까지 규모나 액수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나, 經濟外的인 影響을 최소화하면서 比較優位 원리에 입각한 南北分業의 효율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架橋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라고 判斷됨.

(2) 展 望

— 美·北 核協商의 妥結과 政府의 對北經協 제1단계 完화조치 發表에 따라 지난 2년간 空轉하고 있던 南北韓 경제교류는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고 있음.

- 특히 이번 政府의 조치는 核·經協의 연계 고리를 解除하고 경색국면에 놓

〈表 IV-8〉 年度別 搬出入 承認現況 (1988.10~1994. 10)

年度	搬入			搬出			計		
	件數	品目數	金額(千\$)	件數	品目數	金額(千\$)	件數	品目數	金額(千\$)
1988	4	4	1,037	-	-	-	4	4	1,037
1989	57	20	22,235	1	1	69	58	21	22,304
1990	75	26	20,354	4	4	4,731	79	30	25,085
1991	328	92	165,996	40	48	26,176	368	140	192,172
1992	365	93	200,685	42	34	12,818	407	127	213,503
1993	478	87	188,528	76	39	10,262	554	125	198,790
小計	1,307	127	598,835	163	78	54,056	1,470	205	652,891
1994. 1-10	475 (381)	81	152,671 (165,999)	123 (51)	42	15,680 (6,886)	598 (434)	123	168,351 (172,885)
總計	1,782		751,506	286		69,736	2,068		821,242

註：1. ()内는 1993年 동기실적.

2. 품목수의 小計 및 總計는 당해 기간중 중복된 반출·입 품목수 제외.

資料：통일원, 「남북교류 협력 동향」, 1994년 10월.

〈表 IV-9〉 年度別 搬出入 通關現況 (1988.10~1994. 10)

年度	搬入			搬出			計		
	件數	品目數	金額(千\$)	件數	品目數	金額(千\$)	件數	品目數	金額(千\$)
19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19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19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19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19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小計	1,555	135	477,684	188	52	25,791	1,743	187	503,475
1994. 1-10	525 (467)	69 (67)	135,276 (148,427)	154 (54)	38 (15)	10,884 (3,559)	679 (521)	99 (82)	146,160 (151,986)
總計	2,080		612,960	342		36,675	2,422		649,635

註：上同

資料：上同

〈表 IV-10〉 年度別 임가공 通關現況 (1988.10~1994. 10)

年度	件數	搬入	搬出
1991	1	22,880	13,406
1992	10	556,076	413,635
1993	44	4,384,634	3,610,788
小計	55	4,963,590	4,037,829
1994. 1-10	84	14,270,752	10,126,366
	(30)	(2,899,649)	(2,117,993)
總計	139	19,234,342	14,164,195

註 : ()는 전년 동기실적

인 南北關係를 우리측이 주도하겠다는 意志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인의 訪北, 사무소 설치 및 위탁가공 사업의 확대 허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經協方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對北經協 活性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됨.

- 실제로 그 동안 여러 經路를 통하여 조심스럽게 對北投資 可能性을 타진하여 온 財界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對北經協의 주도권 先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EU 및 美國을 위시한 西方國家의 企業들도 多角度의 對北進出 戰略을 은밀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와 같이 對北進出을 위한 국내의 企業의 行步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對北 直交易 및 投資擴大가 본래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산재해 있는 실정임.

- 무엇보다도 政府가 「先핵문제 해결, 後경협」의 원칙을 대폭 양보하여 南北經協의 물꼬가 트이기는 하였으나 이에 相應하는 북한당국의 努力과 誠意가 未洽할 경우 모처럼 마련된 對北經協 정상화의 好機는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北韓은 일차적으로 향후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核疑感 解消과정에서 最善의 노력을 기울여 국제사회로의 평화적인 복귀 의사를 천명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對北經協의 效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經濟的으로는 對北投資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외채무 미상환, 잦은 계약 위반에 따른 신용도 추락, 투자자본 보호장치 결여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市場經濟 요소를 도입하고 劣惡한 사회간접 설비의 擴充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기반 확대에 주력해야 될 것임.

- 물론 北韓은 體制維持가 최우선 政策課題이기 때문에 代案으로 김정일의 정권기반이 確固히 다져질 동안에는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南北經協 擴大보다, 단기적으로 中國과 같은 特定국가에 전적으로 依存하여 식량 및 생필품난 해결에 주력하는 일차적 조정기간을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北韓의 經濟事情과 이와 맞물린 국제경제 환경을 종합하여 고려할 경우, 北韓의 經濟開放 推進 및 擴大過程에서 南北經協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왜냐하면 파탄에 빠진 북한경제를 치유하기 위한 대내적 처방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자본회수율이 높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일부 서방 기업에만 의존하여 북한경제를 回生시키기에는 여러가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北韓은 일차적으로 나진·선봉지역에 여러 가지 호조건을 제시하며 南韓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에, 적어도 개방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기업의 對北 技術 및 資本 진출의 과당경쟁도 예상되고 있음.

(3) 對 應

- 남북경협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측의 원칙 및 방향 정립과, 각종 관련 法的·制度的 기반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일차적으로는 北韓체제가 김일성 사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상태로 들어설 때까지 우리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戰略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核問題로 增幅된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우리경제 전반의 불안과 對外 신뢰도 下落 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처럼, 북한체제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短期的 차원의 對備策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예로서 식량, 생필품, 에너지 부문의 지원 방안).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1)남북간 화해조치 및 각부문의 협력, 2)전쟁방지를 위한 평화의 제도화 및 3)통일 실현을 위한 원칙 합의와 같이 남북 양측이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지난 92년에 체결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원칙 준수를 북측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당시 합의된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본격적 가동에 대비한 세부적 지침도 정비·보완되어야 할 것임.
- 우리에게 「經濟」가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카드」이므로 對北韓 경제협력과 지원을 戰略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對北 영향력 擴大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兩側의 信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을 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經協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측이 희망하는 3段階 統一方案이 현실성을 갖게 될 것임.

V. 要約

WTO의 出帆은 80년대의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貿易體制를 自由貿易體制로 회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 WTO의 出帆에 따라 世界經濟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교역환경 하에 점차 국경이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履行하게 될 것임.
- 즉, 世界經濟는 하나의 교역규범 및 하나의 국제기구, 그리고 하나의 시장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임.

WTO의 出帆으로 특혜적·배타적 경제블록화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부분 해소되겠지만, 인접국 또는 경제적 이해를 함께하는 국가간 地域主義 또는 지역단위의 협력강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은 地域主義 추세는 世界交易環境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WTO體制를 보완하여 多者間 交易秩序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
- 따라서, 향후 世界交易秩序의 향방은 WTO體制와 여타지역경제, 즉 유럽경제지역(EEA),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WTO 出帆 이후에는 무역과 환경, 노동, 경쟁정책, 기술정책에 관한 범세계적 규범설정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新通商 이슈들은 향후 다자간 협상의 主要議題가 될 것으로 보임.
- 현재로서는 WTO 發足과 더불어 환경과 노동이슈가 우선적으로 차기라운드 다자간 통상협상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이어 競爭政策,

그리고 상당기간후 기술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94년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世界經濟는 1995년에도 전년에 비해 0.5% 포인트 정도 증가한 3.6% 내외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先進國 經濟는 美國經濟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 및 독일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한데 힘입어 올해보다 다소 높은 2.6% 내외의 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開途國 經濟의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및 안정화정책의 효과와 역내 교역증대 등에 힘입어 내년에도 5% 이상의 成長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995년도 國際金利는 先進國들의 경제회복으로 인한 民間投資의 증대, 開途國들의 SOC 확충을 위한 外資導入의 증대 등 세계자금수요의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995년도 美달러貨는 日本의 경상수지흑자가 축소됨에 따라 엔貨에 대한 강세를 다소 회복할 것이며, 마르크貨에 대해서도 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임.
- OPEC 국가들의 원유증산자제, 非OPEC 국가들의 설비의 노후화와 함께 세계원유수요의 증가 및 투기성 자금의 원유시장유입 등으로 油價는 내년에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임.
- 油價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物價上昇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나, 輸出競爭의 심화에 따른 기업의 가격인하 노력이 이를 상당부분 흡수함으로써 1995년도 物價上昇率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先進國의 경기회복과 아시아를 비롯한 開途國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대, 그리고 WTO體制 出帆의 영향 등에 힘입어 世界貿易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은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이 1995년에 예상되는 世界經濟環境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은 크게 ① WTO 出帆과 經濟活動의 범세계화 등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의 개발이 요구되며, ② 우리나라의 各種制度와 정책의 실질적인 先進化, ③ 환경, 경쟁, 노동, 기술 등 신분야 관련 國際協商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④ 호황국면을 맞을 世界經濟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⑤ 주요교역대상국 및 지역과의 經濟協力強化를 위한 多角的인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한편, 世界經濟環境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별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WTO의 後續協商에 대비하기 위한 국경이동 및 금융서비스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市場開放을 위한 사전준비와 제도정비가 필요함.
- 新경제 5개년계획 후반기인 1996년까지는 OECD加入이 가능하도록 이미 검토된 OECD 규정을 중심으로 가입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OECD 각종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며, 그를 위한 國內與件을 조성해야 함.
- 國際環境問題의 전개 및 그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준 및 규제의 강화와 관련제도의 정비 등을 통하여 국제적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협상논리를 개발하여 WTO 貿易·環境委員會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환경외에 新通商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 경쟁, 기술 등 분야에 있어서도 관련 국내법 및 제도를 國際水準에 맞게 개선하여 통상마찰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관련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 미국, 일본, EU 등 主要先進國과의 차원높은 경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법·제도 및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

여 그들의 기술이 체화된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海外進出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

- 최근 고도의 經濟成長과 함께 輸出市場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국과 중남미지역과의 經濟協力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對開途國 경제원조의 확대는 물론이고, 국가 혹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개발사업의 추진등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임.
- 多者間 交易秩序의 수혜자인 우리나라로서는 APEC에서의 협조강화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인 바, APEC 국가간 貿易自由化 協商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自由化計劃을 마련해야 할 것임.
- 南北韓經濟協力の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制度的 기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經濟協力を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도 우리측의 원칙 및 방향정립과 각종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EP 發刊資料 案内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화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1]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賃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の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화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告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堦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 出帆과 新交易秩序 ('94.07)	共 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화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화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の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の 金融自由化와 엔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の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鈺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の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94.5)	共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 貿易赤字國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 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産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 세미나資料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共同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06) 吳勇錫 編
-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0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06)
-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06) 任千錫 編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4.06) 金時中 編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94.09)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 Working Paper

- Chungsoo Kim,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 Lynn Krieger Mytelka,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08)
- Sung Yeung Kwack,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 Taeho Bark,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 Yoo Soo Hong,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 Jang Hee Yoo,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07)
- Taeho Bark,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 Janghee Yoo,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 In-Soo Kang,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01)
- Jai-Won Ryou and Byung-Nak Song,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 Sung-Hoon Park,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 Wook Chae,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06)
- Chung-Ki Min,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Joo-Sung Jun,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 Yoo-Soo Hong,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Jin-Soo Yoo,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 - 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7)
-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4.08)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政策資料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1994年 12月 23日 印刷

1994年 12月 26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942-1番地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本 報 告 書 內 容 的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是 禁 止 的

ISBN 89-322-2014-X